

2014년 8월
석사학위논문

황진이 시와 왕미 시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 첨

황진이 시와 왕미 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oetry of Hwang-jini and
Wang-mi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 침

황진이 시와 왕미 시 비교 연구

지도교수 이 상 원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 침

전침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수중</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미령</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상원</u> (인)

2014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 방향	2
II. 생애 및 작품 개관	7
1. 황진이의 생애와 작품 개관	7
2. 왕미의 생애와 작품 개관	10
III. 黃眞伊와 王微 시의 특징	17
1. 사랑과 이별	17
1) 황진이 : 그리움의 미학	17
2) 왕미 : 기다림의 미학	21
2. 멋과 풍류	25
1) 황진이 : 남성적인 멋	25
2) 왕미 : 여성적인 멋	26
3. 삶에 대한 태도	29
1) 황진이 : 과거 회상을 통한 허무주의	29
2) 왕미 : 자연 애호를 통한 현실 수용	31
IV. 黃眞伊와 王微 시의 문학사적 의의	35
V. 결 론	37
참고문헌	39

표 목 차

<표 1> 황진이의 가계	7
<표 2> 黃眞伊의 詩歌 形式 分類	9
<표 3> 王微의 詩歌 形式 分類	1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oetry of Hwang-jini and Wang-mi

Jeon, Chom

Supervisor : Lee, Sang-Won,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the poetry written by Hwang Jin-Eee, a representative Korean Giseng, and Wang Mi, a representative of Chinese Giseng. It was judged that they could be subjects for comparison in that they have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s and literary achievement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poetry they wrote.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examined the history of research on the two poets.

Chapter 2 outlined their lives and poetic works. In summing up diverse information on them, Hwang Jin-Eee was a female poet who was actively engaged in writing poetry under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King Myongjong, and Wang Mi's literary activity was from 1599 to 1644. The former preferred Chilunjeolgu (a quatrain with seven words to a line) as a poetry style while the latter preferred Ounyuksi (a Chinese poetry style with eight lines and five characters in one phrase).

Chapter 3 analysed their perspectives on ‘love and separation’, ‘elegance and taste’, and ‘attitude toward life.’ As for ‘love and separation’, Hwang Jin-Eee was outstanding in the aesthetics of missing while Wang Mi was remarkable in the aesthetics of waiting. With respect to ‘taste and elegance’, Hwang Jin-Eee showed manly attraction through manly tones while Wang Mi showed feminine attraction through friendship with noble ladies in the ‘attitude toward life’, Hwang Jin-Eee revealed empty feelings through reflection while Wang Mi accepted reality through a love of nature.

Chapter 4 speculated on the meaning of their poetry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Hwang Jin-Eee's poetr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oetic literature in Korea, and in particular, it paved the way for development of Chinese poetry written by women. Wang Mi's poetry had meaning in that it secured the position of Chinese poetry written by Giseng and completed the peak of Giseng literature.

Chapter 5 summarized what was discussed in this study.

I. 서론

1. 연구 목적

한·중 양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작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하는 대상이 대부분 남성작가 위주로 진행되었고 여성작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작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과 그들의 작품이 소실되어 많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¹⁾

조선시대는 봉건윤리가 강한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서 여성들은 사랑의 자유, 교육의 기회 등을 얻지 못하고 또 남성에게 순종해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명말 청초도 마찬가지로 男尊女卑의 사상이 강하고 여성들의 독립적인 인격이나 사상을 용납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녀들은 일반부녀보다 봉건적 도덕규범에 대한 구속이 없어서 더욱 다채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시작품을 통해 喜, 怒, 哀, 樂과 사랑에 대한 추구, 임을 향한 정한을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양반규수와 달리 좀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학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능화(1868~1945)는 『조선여속고』에서 詩詞의 우열에 대하여 “교방기녀의 시가 사족첩실의 시사보다 낮고, 사족첩실의 시사가 사족부녀의 시사보다 나으니, 그 처한 경지에 따라 감정과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²⁾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교방기녀의 작품은 연구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黃眞伊(조선시대), 李梅窓(조선시대), 金雲楚(조선시대), 薛濤(당나라), 魚玄機(당나라), 柳如是(명말 청초) 등 대표적인 기녀시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기녀신분의 시인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54편의 많은 詩詞 작품을 갖고 있는 王微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한·중 유명한 기녀시인인 황진이와 왕미를 비교하고자 한다. 황진

1) 김준영, 「당대 설도와 조선 황진이의 시가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2008, p.1.

2)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p.408.

이와 왕미는 모두 조선시대와 명말 청초 때에 명성이 널리 알려진 기녀시인이고 특히 양국 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여류시인이었다. 황진이와 왕미는 거의 비슷한 시기의 기녀시인으로서 뛰어난 문학성, 재주, 문학적 지위 등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두 시인의 작품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멋을 추구하고 구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윤리를 강요를 받았던 시대에서, 여성 스스로 자아가치를 추구하고 사상을 해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중 양국에서 나름대로 기녀문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비교문학의 차원에서 아직도 연구가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한다. 특히 기녀문학의 비교연구는 양국 기녀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비교 고찰은 한·중 기녀문학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양국 고전 기녀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하여 황진이의 멋을 좀 더 크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 방향

황진이에 대한 연구는 작가론적인 측면과 작품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업적이 쌓여 있다. 작가론적인 연구에는 한용운의 「천하명기 황진이」, 이병기의 「황진이의 예술」, 이은상의 「황진의 일생과 그의 예술」, 김용숙의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 황순구의 「황진이론」 등이 있고, 작품론적인 연구에는 조운제의 「황진이 시와 한국시가의 전통」, 이신복의 「황진이론」, 강전섭의 「황진이의 문학 유산 정리」, 윤재철의 「황진이 연구」, 김주수의 「황진이 한시와 시조의 비교 연구」 등이 있다. 또 현대문학에 접근한 연구와 다른 작가와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현대문학에 접근한 연구는 최동호의 「황진이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 윤영옥의 「황진이 시의 tension」, 성락희의 「황진이의 시조와 한시 - <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등이 있으며, 비교 연구는 임성철의 「황진이의 문학과 애정관의 고찰

-Stendhal의 연애론과 비교하여», 박영완의 「황진이 문학 연구」, 성기서의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 등이 있다.

황진이에 대한 연구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용운으로 그는 「천하명기 황진이」란 논문에서 황진이에 관한 일화와 인물됨에 대해 소개하였다.³⁾ 1941년에 이병기는 「황진이의 예술」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황진이에 관한 일화와 그녀의 인물됨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진이는 우리가 존중할 만한 예술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⁴⁾ 그 다음으로 황순구는 「황진이론」이란 논문에서 황진이가 중국의 李季蘭, 薛濤 그리고 한국의 허난설헌, 이옥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특히 시조에 있어 松江, 孤山 등과 어깨를 겨룰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⁵⁾

황진이의 작품론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김주수는 「황진이 한시와 시조의 비교 연구」란 논문에서 황진이의 한시와 시조가 주제, 서정뿐만 아니라 수사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바가 많다고 밝히었다.⁶⁾ 강전섭은 황진이 문학 유산을 정리해서 「황진이의 문학 유산 정리」란 논문을 발표하였고⁷⁾, 또 중요한 논문들을 모아 『황진이 연구』를 간행함으로써⁸⁾ 황진이 연구에 대해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윤재철은 「황진이 연구」란 논문에서 황진이의 시가 대부분 한의 정조를 그리고 있지만 그 한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밝히었다.⁹⁾ 양희철은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일이야...>의 연구」란 논문에서 황진이의 시조인 「어저 내일이야...」에 나타난 세 종류의 중의, 이와 관련된 텍스트와 양면적 자기갈등의 연정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다음에 이 작품이 유희공간에서 보이는 세 기능을 규명하였다.¹⁰⁾

현대문학에 접근한 연구는 최동호의 「황진이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최동호는 이 논문에서 시적 발상의 기본적 구조로서의 양면성의 관점에서 황진이의 시를 분석하였고 또 그녀의 시가 남성적인 決斷力이 있는 시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¹¹⁾ 윤영옥은 「황진이 시의 tension」이란 논

3) 한용운, 「천하명기 황진이」, 『별건곤』 4, 개벽사, 1929.

4) 이병기, 「황진이의 예술」, 『춘추』 제2권 제4호, 조선춘추사, 1941.

5) 황순구, 「황진이론」, 『논문집』 3, 대전대학교, 1984.

6) 김주수, 「황진이 한시와 시조의 비교연구」,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7) 강전섭, 「황진이의 문학 유산 정리」, 『어문학』 46, 한국어문학회, 1985.

8) 강전섭, 『황진이연구』, 창학사, 1985.

9) 윤재철, 「황진이 연구」, 『청람어문교육』 12, 청람어문학회, 1994.

10) 양희철,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일이야...>의 연구」,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2012.

11) 최동호, 「황진이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 『어문논집』 18, 안암어문학회, 1977.

문에서 텐션의 시각에서 황진이의 시를 분석하였고, 그녀의 시속에 대립되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각각 ‘산’과 ‘물’로 표상되었다고 밝히었다.¹²⁾

또한 황진이에 대한 비교 논문을 살펴보면 박영완은 「황진이 문학 연구」에서 황진이와 중국의 여류시인인 薛濤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는데 황진이가 한시와 시조에서 비슷한 문학적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설도는 시와 詞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밝히었다.¹³⁾ 성기서는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란 논문에서 셰익스피어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위적이고 有爲의 세계관을 보이는 반면에 황진이는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무위적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밝히었다.¹⁴⁾ 이화형은 「시조를 통한 송이와 황진이의 동이성 비교 고찰」이란 논문에서 송이와 황진이를 비교하였는데 송이와 황진이는 신분적 한계로서의 정념에 시달렸던 모습이 동질적인데 황진이가 늘 주체적 입장에서 인간과 세상을 보고자 하는 반면에, 송이는 감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의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⁵⁾ 또한 2014년에 이화형은 「황진이와 이매창의 한시 비교 고찰」이란 비교 논문도 발표하였는데 논문에서 황진이와 이매창이 주제적 의식과 인간성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현실을 직면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밝히었다.¹⁶⁾ 이형우는 「상상력의 체질적 층위 - 황진이와 송이 시조의 체질적 상상력 고찰-」이란 논문에서 체질적 상상력이란 차원에서 황진이와 송이의 시조를 비교하였으며 두 시인이 양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시공,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¹⁷⁾

한편 황진이의 생애에 대한 문헌적 기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於于野談』, 『識小錄』, 『松都記異』 등이 황진이와 같은 시기의 편찬물로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외에 『中京誌』, 『韶濩堂集』, 『朝野彙言』, 『錦溪筆談』 등은 후대자의 편찬물로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황진이에 대한 기사가 들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12) 윤영옥, 「황진이 시의 tension」, 『국어국문학』 83, 국어국문학회, 1980.

13) 박영완, 「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5.

14) 성기서,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5.

15) 이화형, 「시조를 통한 송이와 황진이의 동이성 비교 고찰」, 『시조학논총』 35, 한국시조학회, 2011.

16) 이화형, 「황진이와 이매창의 한시 비교 고찰」,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학회, 2014.

17) 이형우, 「상상력의 체질적 층위-황진이와 송이 시조의 체질적 상상력 고찰-」, 『한국시가연구』 34, 한국시가학회, 2013.

다음으로 왕미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국에서 기녀시인에 대한 연구는 薛濤, 魚玄機, 柳如是, 李冶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왕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施蟄存은 왕미의 시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王修微集』을 엮었는데 여러 이유로 출판되지 않았다. 시집존의 제자인 馬祖熙는 『왕수미집』에 의거하여 『女詞人王修微及其〈期山草詞〉』란 책을 엮었는데¹⁸⁾ 이 책이 지금까지 왕미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연구서라고 볼 수 있다. 孫康宜는 「明清詩媛與女子才德觀」에서 왕미와 같은 기녀시인인 楊宛을 비교하였는데 양완이 행동거지가 경박하고 성격이 경조부박한 사람인데 비해 왕미는 부덕이 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밝히었다.¹⁹⁾ 이 외에 석사논문 한 편이 있는데 논문에서 왕미의 시작품이 맑고 아름다우며 특히 시경을 다루는 기법이 높다고 밝히었다.²⁰⁾ 이 밖에 단행논문 네 편²¹⁾이 있다. 歐陽珍은 「論草衣道人王微詞作」에서 왕미가 도량이 넓은 사람이고 이런 성향이 詞작품에서도 드러난다고 하였다.²²⁾ 孟光全은 「王微與譚元春的詩歌唱和」란 논문에서 왕미에게 큰 영향을 끼친 대학자인 담원춘과의 창화시를 살펴 보았고 또 이를 통해 그 창화시의 의미까지 추적하였다.²³⁾

한편 胡曉明은 『文化江南劄記』란 책에서 왕미에 대해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왕미와 유여시의 혼인을 예로, 명말 청초 때에 강남지역에서 흥기된 혼인 패턴, 즉 옛날에 위세가 높은 일문이 양반규수와만 인연을 맺던 혼인 패턴과 달리, 양반귀족이 천인 신분인 기녀를 첩으로 들여 그녀들에게 예의바르게 대해 주는 새로운 혼인 패턴을 밝히었다. 또한 왕미가 이름이 높은 여성이자 신여성이라고 규명하기도 하였다.²⁴⁾ 이 외에 유럽학자인 高彥頤는 『閨塾師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란 책에서 왕미의 생애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상층남성 및 여성들과의 교유관계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²⁵⁾ 王自立은 『王修微年譜』란 책을 엮고 왕미의

18) 馬祖熙, 『女詞人王修微及其〈期山草詞〉』影印版,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19) 孫康宜, 李爽學 譯, 「明清詩媛與女子才德觀」, 『中外文學』21卷 11期, 台北出版社, 1993.

20) 詹學敏, 「王微研究」, 南京大學 中國國代歷系 碩士論文, 2011.

21) 孟光全, 「王微與譚元春的詩歌唱和」, 『內江師範學院學報』(7期), 四川: 內江師範學院, 2009.

歐陽珍, 「論草衣道人王微之詞作」, 『廣西社會科學』(8期), 廣西: 廣西社會科學界聯合會, 2010.

王自立, 「廣陵草衣覓好句 吳江柳隱夸桃花」, 『揚州日報』, 揚州: 楊州市委機關報, 2011.

王鶴, 「被詩與禪搭救的出水青蓮 王微與譚元春 許譽卿」, 『書屋』(9期), 湖南: 中南出版傳媒, 2009.

22) 歐陽珍, 「論草衣道人王微之詞作」, 『廣西社會科學』(8期), 廣西: 廣西社會科學界聯合會, 2010.

23) 孟光全, 「王微與譚元春的詩歌唱和」, 『內江師範學院學報』(7期), 四川: 內江師範學院, 2009.

24) 胡曉明, 『文化江南劄記』,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6.

25) 高彥頤, 李志生 譯, 『閨塾師: 明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影印版, 江蘇人民出版社, 2005.

생존 연대를 1597년부터 1647년까지로 추정하였다.²⁶⁾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유명한 기녀시인인 황진이와 왕미의 시작품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황진이의 시가 작품에는 시조와 한시가 있다. 시조는 『고시조 대전』에 의거하면 총 6수²⁷⁾로 파악할 수 있고, 한시는 『역대여류한시문선』, 『해동시선』에 의거해 총 8수²⁸⁾로 파악할 수 있다. 황진이의 시작품은 따로 만든 문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유전되던 것이 후대에 여러 시가집에 분산 수록되어 겨우 전해지게 된 것이다. 왕미의 詩詞로는 총 154편이 있다. 詞는 총 33수로 『精選古今詩余醉』, 『古今詞統』, 『林下詞選』, 『名詞綜』, 『中國歷代婦女文學作品精選』 등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시는 총 121수가 있는데 『名媛詩歸』, 『露書』와 『四朝詩』 등 시집에 실려 있다. 그녀의 문집은 총 8권으로, 『名山集』, 『樾館詩』, 『宛在篇』, 『未焚稿選』, 『遠遊篇選』, 『浮山草選』, 『間草集』, 『期山草選』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란 속에서 流失되고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책에 의거해 황진이의 한시와 시조 그리고 왕미의 시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황진이와 왕미의 생애와 시가 작품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 간에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생애를 고찰하는 것은 본고의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시가 작품의 개관에 대해, 먼저 두 시인의 작품의 존재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황진이와 왕미의 시가작품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제별로 ‘사랑과 이별’, ‘멋과 풍류’, ‘삶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두 시인의 시가 작품을 살펴보고, 각각 분류의 내용을 대비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제2장, 제3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황진이와 왕미의 시에 대한 문학적 평가와 의미를 검토해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기로 한다.

제V장에서는 모든 논의를 요약해 결론을 추출하고자 한다.

26) “詹學敏, 『王微研究』, 南京大學 中國國代歷系 碩士論文, 2011, p.3.”에서 재인용.

27) 「내 뜻은 청산이요」, 「내 언제 무신하여」, 「동짓달 지나긴 밤을」, 「산은 옛 산이로되」, 「어저 내 일이며」, 「청산리 벽계수야」.

28) 「奉別蘇判書世讓」, 「松都」, 「詠半月」, 「別金慶元」, 「相思夢」, 「小柏舟」, 「滿月臺懷古」, 「朴淵」.

II. 생애 및 작품 개관

1. 황진이의 생애와 작품 개관

황진이의 妓名은 明月이다. 본명은 眞 또는 眞伊이므로 眞娘이라고 애칭되었다. 황진이는 천인계급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가 없고 간접적인 사료인 야사와 일화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신비화시킨 흔적이 보여 허실을 가리기 어렵다. 황진이의 작품은 시조 6수, 한시 8수가 있다. 황진이의 시 작품을 따로 만든 문집은 없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전된 시를 후대에 기록한 것들이 겨우 전해 내려오고 있다.

황진이의 생존 연대를 언급한 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우야담』에 嘉靖初²⁹⁾로 기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소록』에 恭憲王朝³⁰⁾로 기록된 것이다. 가정(1522~1567)은 明世宗의 연호로서 가정 1년은 조선 제11대 중종 17년에 해당되고 가정 말년은 조선 13대 명종 20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헌왕조는 중종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종합해 보면 황진이는 조선 중종과 명종 때에 활동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황진이는 中宗(1506~1544)·明宗(1545~1567) 연간에 생존하였던 명기였다.

또한 황진이는 출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된 자료가 없다. 지금까지 유전된 자료를 보면 황진이의 부친은 황진사이거나 무명한 양반이고 모친은 陣玄琴이거나 맹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황진이의 가계

문헌 명칭	부	모
『송도기이』	형용이 단아하고 의관이 화려한 사람	玄琴
『지소록』	무	盲女
『조야회언』	무	盲女
『중경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년	陣玄琴
『송양기구전』	황진사	陣玄琴

29) 嘉靖初 松都名妓 有眞伊者 女中之僊任俠人也. 『於野談』

30) 恭憲王朝 有士人李彥邦 中略 松京娼眞娘 聞其善唱 來訪其家. 『識小錄』

위의 표를 보면 황진이에 대해 ‘황진사’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문헌은 『송양기구전』밖에 없다. 황진이에 아버지가 양반인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송도기이』³¹⁾이다. 의관이 화려한 사람이 황진이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보면 황진이에 아버지가 양반 신분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송도기이』의 편찬자 이덕형은 陳福이라는 아전의 老父 陳史에게서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송도기이』에 담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 진사는 현금의 친척이며 연대를 살펴보면 진사가 10살까지 황진이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꽤 신빙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³²⁾ 하지만 진사는 80살이 되는 노인이니 기억력이 그다지 실통하지 않을 것이고³³⁾ 진사는 황진이에 친척으로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하여 황진이를 미화시켰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된다.

『중경지』³⁴⁾에서 서술한 내용은 『송도기이』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황진이에 아버지가 ‘이름이 없는 소년’, ‘神仙’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또는 황진이를 낳을 때 ‘향기가 방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황진이를 ‘선녀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황진이에 출생을 신화처럼 다룬 것을 보면 신빙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지소록』³⁵⁾과 『조야회언』³⁶⁾에서는 황진이에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어머니는 맹녀라 언급하였다. 이 두 문헌에서는 『송도기이』, 『중경지』와 같이 미화하고 과장한 내용이나 황진이에 아버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기에 황진이에 어머니가 맹녀라는 것은 신빙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싶다.

황진이에 시가 작품은 시조와 한시가 있다. 시조는 『고시조 대전』에 의거하면 총 6수로서 「내 뜻은 청산이요」, 「내 언제 무신하여」, 「동짓달 지나긴 밤을」, 「산은 옛 산이로되」, 「어저 내 일이여」, 「청산리 벽계수야」로 파악되며, 한시는 『역대여류한시문선』과 『해동시선』에 의거하면 총 8수로서 「奉別蘇判書世讓」, 「松都」, 「詠半月」, 「別金慶元」, 「相思夢」, 「小柏舟」, 「滿月臺懷古」, 「朴淵」으로 파악

31) 母玄琴 頗有姿色年十八 浣布於兵部橋下 上有一人 形容段妙 衣冠華美 注目玄琴 或笑或指 玄琴亦心動 其人仍忍不見 日已向夕 漂女盡散 其人條來橋上 倚柱長歌 歌竟求飲 玄琴以瓢 盛水而進 其人半飲 笑而還與曰 汝且試飲之 乃酒也 玄琴驚異之 因與講歡 遂生眞娘. 『松都紀異』

32) 한혜순, 『황진이에 생애와 문학』, 『성심어문논집』,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성심어문학회, 1966, pp.23~25.

33)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1970, p.273.

34) 眞之母陳玄琴 浣紗於兵部橋下 一有少年 嬉謔而去 薄暮又來 請水玄琴杓水與之 水化爲酒 仍成公歡 扛其姓名不告而去 意以爲仙人 果有娠生眞 產時 異香滿室再齊之 則是仙女 有何黃耶. 『中京志』

35) 眞娘 開成盲人之子. 『識小錄』

36) 眞娘 開成盲女之子. 『朝野彙集』

된다. 황진이의 시작품을 따로 만든 문집은 없고 사람들의 입으로 유전된 시를 후대에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다. 황진이의 시가 작품을 형식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黃眞伊의 詩歌 形式 分類

번호	형식	작품	번호	형식	작품
1	五言律詩	「奉別蘇判書世讓」	8	七言律詩	「滿月臺懷古」
2	五言絶句	「松都」	9	時調	「내 뜻은 청산이요」
3	五言絶句	「詠半月」	10	時調	「내 언제 무신하여」
4	七言絶句	「別金慶元」	11	時調	「동짓달 지나긴 밤을」
5	七言絶句	「相思夢」	12	時調	「산은 옛 산이로되」
6	七言絶句	「小柏舟」	13	時調	「어저 내 일이여」
7	七言律詩	「朴淵」	14	時調	「청산리 벽계수야」

<표 2>에 의거하면 황진이의 한시 작품에는 五言보다 七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五言은 총 3수가 있고 그 중에 절구가 2수, 율시가 1수만 있으며 七言은 총 5수가 있고 그 중에 절구가 3수, 율시가 2수만 있다. 이에 황진이는 七言이나 절구에 뛰어났고 특히 칠언절구에 가장 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시대적 배경과 한시의 작시법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해동시선』에 의거하면 고려 이후 조선 순조까지의 여성한시는 주로 절구, 특히 칠언절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⁷⁾ 절구는 율시보다 平仄, 格式, 押韻과 대구를 이루는 데에 엄격성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쉽게 지어 부를 수 있다. 기녀로서의 황진이가 칠언절구를 많이 읊은 이유도 이런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시적 내용을 살펴보면, 시조에는 애정에 대해 묘사한 작품이 5수, 회고적 정서에 대해 묘사한 작품이 1수가 있다.³⁸⁾ 이에 비해, 한시에는 애정에 대해 묘사한 작

37) 『해동시선』에 수록된 여성한시 작품은 양에 따라 열거하면 七言絶句가 88수로 제일 많고, 五言絶句가 54로 그 다음이다.

38) 애정에 대해 묘사한 시조 : 「내 뜻은 청산이요」, 「내 언제 무신하여」, 「동짓달 지나긴 밤을」, 「어저 내 일이여」, 「청산리 벽계수야」. 회고적 정서에 대해 묘사한 시조 : 「산은 옛 산이로되」.

품 5수, 자연에 대해 묘사한 작품 1수, 회고적 정서를 드러낸 작품 2수가 있기에³⁹⁾ 주제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2. 왕미의 생애와 작품 개관

왕미의 자는 修微이고, 호가 草衣道人이다. 명말 청초 때 廣陵의 명기로 시와 회화에 조예가 깊었다. 그녀는 기녀 중에 문집을 많이 간행한 편이었고 또 유명한 여행가로도 널리 알려졌다. 왕미는 茅元儀와 許譽卿의 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좋은 결말을 얻지 못하였다.⁴⁰⁾ 왕미는 뛰어난 시재로 명성을 크게 떨쳐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유여시⁴¹⁾와 함께 우수한 여류시인으로 널리 알려지었다. 전겸익은 이에 대해 “지금 천하에서 시문이 부진하고 奎壁⁴²⁾ 간에 빛이 까마며 초의도인과 유여시만 문장이 맑고 아름다우니 서령과 육교에서 뛰어나다.”⁴³⁾라고 말한 적이 있다. 陳繼儒는 왕미의 시가 작품에 대해 “왕미의 시는 薛濤와 비슷하고 詞는 李清照와 비슷하며 粉黛之氣가 없으니 곧 남자라고 해도 부족한 점이 없다.”⁴⁴⁾라고 하였으며 鍾惺은 “왕미의 시는 아름다우니 이청조, 朱淑眞의 작품과 동등하게 뛰어나다.”⁴⁵⁾라고 평가하였다.

왕미는 자가 수미이고 광릉 사람이며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북쪽으로 유랑

39) 애정에 대해 묘사한 한시 : 「奉別蘇判書世讓」, 「詠半月」, 「別金慶元」, 「相思夢」, 「小柏舟」. 자연에 대해 묘사한 한시 : 「朴淵」. 회고에 대해 묘사한 한시 : 「滿月臺懷古」, 「松都」.

40) 微字修微, 初歸歸安茅元儀, 晚歸華亭許譽卿, 皆不終. 朱彝尊著, 『明詩綜』 第8冊 卷九十八 影印版, 北京: 中華書局, 2007, p.4545.

41) 명말 청초 때 오강(吳江, 지금의 江蘇에 속함) 사람. 일설에는 嘉興 사람이라고도 한다. 본래의 성은 楊씨고, 이름은 愛 또는 愛兒였는데, 나중에 성을 유씨로, 이름을 隱으로 바꾸었다. 자는 여시이고, 호는 藤蕪며, 세상에서는 河東이라고도 했다. 명나라 말기의 名妓로, 나중에 錢謙益의 첩이 되었다. 시와 그림에 뛰어났다. 전겸익이 관리직을 청산하자 오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전겸익과 함께 絳雲樓에 살면서 酬唱했다. 작품에 「戊寅草」와 「柳如是詩」 등이 있다. 명나라가 망할 때 전겸익에게 순국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전겸익이 죽자 따라 죽었다.

42) 작은 글자로 적어서 부피를 작게 줄인 경서를 이르는 말.

43) 今天下詩文衰燿, 奎壁間光氣蹶然, 草衣道人與吾家河東君, 清文麗句, 秀出西泠六橋之間. 錢謙益, 『列朝詩集小傳』 (下) 影印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p.760.

44) 修微詩類薛濤, 詞類李易安, 无粉黛之氣, 卻須眉男子, 皆當愧煞. 陳繼儒, 『白石樵眞稿』 卷18 影印版, 北京: 北京出版社, 2010, p.296.

45) 其詩娟秀出妍, 與李清照, 朱淑眞相上下. 鍾惺, 『名媛詩歸』 36卷 影印版, p.143.

하게 됐다. 왕미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재능이 점점 출중했다. 그녀는 항상 책을 가지고 작은 배를 타서 江蘇와 湖北 지역에서 가고 오고 유람했는데 그녀와 동행한 사람들이 모두 그 당시에 이름난 명사들이었다. 왕미는 항상 벼옷을 입고 대지팡이를 짚어서 楊子江, 大別山, 黃鶴樓 일대에서 유람했으며 또 여러 문사들과 鸚鵡洲, 武當山과 天柱峯에서도 유람했다. 왕미는 廬山의 香山草堂에 가서 진계유를 찾아뵈고 五乳山에 가서 憨大師를 참배하고 불교에 귀의했다. 환속한 후 왕미는 杭州에서 壽藏을 만들어 놓았고 스스로 초의도인(草衣道人)이라 자칭하고 여기에서 종언할 마음을 먹었다.⁴⁶⁾

위 내용을 통해서 왕미의 생애를 대략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미는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왕미는 어떻게 기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어 닥쳐온 곤경으로 인해 기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왕미는 자연풍경을 즐기는 사람이고 늘 조각배를 타서 강소와 호북 지역에서 가고 오고 유람하였는데 동행한 사람이 모두 당시에 이름난 명사들이었다. 유람한 곳은 대별산, 황학루, 앵무주, 천주봉 등을 들 수 있는데 또 그곳에서 서로 창화하여 시작품을 많이 남기었다. 후에 왕미는 불법을 깨닫게 되어 오유산에서 감대사를 참배하여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속하여 항주(杭州)⁴⁷⁾에 수장(壽藏)⁴⁸⁾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초의도인이라 자칭하며 종언할 마음을 먹었다.

왕미의 생존 연대에 대하여 명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다. 왕자립은 일찍이 『왕수미연보』라는 책에서 왕미의 생존 연대를 1597년부터 1647년까지라 추정했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張大復이 엮은 『梅花草堂筆談』이란 책의 제14권 “왕미”라는 조목을 보면 “완숙은 어떤 사람인가? 수미와 동시에 태어난 것이다.”⁴⁹⁾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왕미와 楊宛이 동시에 태어난 것, 즉 두 사람이

46) 微, 字修微, 廣陵人. 七歲失父, 流落北里, 長而情殊衆. 扁舟載書往來吳會間, 所與游皆勝流名士. 已而忽有警悟, 皈心禪說, 布袍竹杖, 遊歷江楚. 登大別山, 眺黃鶴樓, 鸚鵡洲諸勝, 謁玄岳, 登天柱峯, 溯大江, 上匡廬, 訪白香山草堂, 參憨大師于五乳, 歸而造生壙于武林, 自號草衣道人, 有終焉之志. 錢謙益, 앞의 책, p.760.

47) 杭州는 고대에서 武林이라고 하였다.

48) 생전에 만들어 놓은 무덤. 유사어는 生壙, 生墳, 壽堂, 壽室, 壽域, 壽塚, 壽穴 등이 있다.

49) “夫宛叔何爲者, 而與修微生同時.”張大復, 『梅花草堂筆談』 影印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p.940~941.

동갑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완이 丁卯 1627년에 29살이라는 내용⁵⁰⁾을 감안해 보면 왕미는 1599년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列朝詩集小傳』이란 책의 ‘왕미’라는 조목에서 왕미가 甲申之變⁵¹⁾이 지난 3년 후에 사망했다는 내용⁵²⁾이 나오는데, 갑신지변이 승정 17년 1644년에 일어났기에 왕미가 1647년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왕미의 생존 연대는 1599년부터 1647년까지로 추정된다.

茅元議의 시인 「燕雪新歸携之白下示宛叔修微」⁵³⁾에 의거하면 왕미가 1615년 경 모원의의 첩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롭게 들인 첩을 왕미에게 소개한 내용과 제목에서 왕미와 그녀의 첩인 楊宛(자가 宛叔임)을 같이 엮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미는 스스로 떠나갔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이어 3년이 지나 1619년에 왕미는 西湖에서 譚元春⁵⁴⁾을 알게 되었다.⁵⁵⁾ 두 사람은 비슷한 불행 경력 때문에 만나자마자 깊은 인연을 맺고 마음이 통하였다. 이별할 때 담원춘은 연작시⁵⁶⁾를 지어 주었는데 왕미도 시로 창화하였다. 그 이후에 왕미는 「西陵懷友夏」, 「如夢令懷譚友夏」와 「無題」등 시를 지었는데 담원춘을 향한 감정을 대담하게 표출하였다. 후에 왕미는 불교에 귀의했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다. 『列朝詩集小傳』(下)에 의거하면 아마 香山草堂에서 진계유를 찾아뵈고 불법을 깨닫게 되어 불교에 귀의한 것 같다. 그러나 왕미는 수행 생활을 오래 못하고 환속하였다. 그 이유는 陸源이 왕미에게 지어 준 시인

50) 宛叔歸于余年才十六耳，能讀書，工小楷，宛叔于書，則冢筆池墨，衣被畫破，于詩遊戲涉略，若不經意，三年而忽成小咏…생략…積之十餘年，其當早獻與天下可否以權其心況余隱矣. 明崇禎刻本 『四庫禁毀書叢刊』 109冊 影印版，北京市：北京出版社，2000，pp.109~152.

『鐘山獻』：歲在丁卯(1627年)黨禍方沸，余殆有隱心焉，乃爲敍內子詩刻之，蓋欲及余見之也. 楊宛，『鐘山獻』，清光緒二十三年，p.1.

위 내용에 의거하면 양완은 16살에 茅元議의 첩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모원의한테 시를 배우기 시작하여 3년이 지나 이미 성취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또 10년 동안 창작한 시를 모아, 1627년에 『鐘山獻』을 간행한 것을 감안하면 양완은 1627년에 29살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왕미도 마찬가지로, 1599년에 태어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왕미의 생년은 1599년으로 삼고자 한다.

51) 甲申之變: 명나라 崇禎 17년인 갑신에 李自成이 북경을 함락하여 명나라를 망하게 만든 변.

52) 當政亂國危之日，多所建白，抗節罷免，修微有助焉。亂後，相依兵刃間，間關播遷，誓死相殉。居三載而卒，潁川哭之慟。錢謙益， 앞의 책， p.760.

53) 茅元議，『石民賞心集』卷三，「燕雪新歸，携之白下示宛叔、修微」詩歌를 참조.

54) 담원춘은 자가 우하(友夏)이며, 1627년에 향시(鄉試)에 합격했으나 벼슬은 하지 않았다. 그가 중국문학사에 남긴 업적으로는 선배인 증성과 공동으로 편집한 『詩歸』가 있다.

55) 譚元春，『譚友夏合集』卷二十三，「題湖霜草」曰：「己未秋蘭，逢王微于西湖，予以己未九月五日至西湖，三旬有五而后返。」참조.

56) 「在錢塘吳興間皆逢王修微女冠，每用詩見贈，臨別答以六章」.

「寄修微」⁵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기녀라는 신분으로 인해 불교에 귀의한 후에도 끊임없이 세속의 소환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에 왕미는 許譽卿을 만나고 그의 첩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왕미는 아름다운 애정을 추구한 것보다는 더 안정적 인생의 결말을 원했기에 허예경과 인연을 맺는 것을 택하였다.⁵⁸⁾ 왕미는 허예경의 첩이 된 후에 내조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고 서로의 감정도 점점 깊어졌다. 갑신지변이 일어난 3년 후인 1647년에 왕미는 사망하였다. 이에 허예경이 통곡하고⁵⁹⁾ 이의지는 「哭修微絶句百首」를 지어 애달픈 감회를 드러냈다.

왕미의 詩詞는 총 154편이 있다. 詞는 총 33수로 『정선고금시여취』, 『고금사통』, 『임하사선』, 『명사중』, 『중국역대부녀문학작품정선』 등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시는 총 121수가 있는데 『명원시귀』, 『노서』와 『사조시』 등 시집에 실려 있다. 그녀의 문집은 총 8권으로, 『명산집』, 『월관시』, 『완재편』, 『미분고선』, 『원유편선』, 『부산초선』, 『간초집』, 『기산초선』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란 속에서 유실되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사 작품을 형식적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王微의 詩歌 形式 分類

번호	형식	작품	번호	형식	작품
1	五言律詩	「送眉公先生還雲間」	80	七言絶句	「秋集石湖分得妝字」
2	五言律詩	「湖上留別王永啟譚友夏」	81	七言絶句	「問待兒月上花梢幾許」
3	五言律詩	「秋夜舟中留別」	82	七言絶句	「仙家竹枝詞二首」
4	五言律詩	「秋夜送別」	83	七言絶句	「園居」
5	五言律詩	「代送」	84	七言絶句	「擬燕子樓四時閨意四首」
6	五言律詩	「憶昔二首」	85	七言絶句	「輓趙凡夫二首」
7	五言律詩	「吳江舟次」	86	七言絶句	「有懷」
8	五言律詩	「天柱峯」	87	七言絶句	「秋日閒賦」
9	五言律詩	「宛叔招飲花下得狂字」	88	七言絶句	「西陵懷友夏」
10	五言律詩	「近秋懷宛叔」	89	七言絶句	「賦戲閨人」

57) 「寄修微(其一)」: 女兒溪淺亦生紋, 巾子峰低也出云. 水定山空何處所, 合歡花底拜茅君.

58) 詹學敏, 앞의 논문, p.16.

59) 穎川在諫垣, 當政亂國危之日, 多所建白, 抗節罷免, 修微有助焉. 亂後, 相依兵刃間, 間關播遷, 誓死相殉. 居三載 而卒. 穎川哭之慟. 錢謙益, 앞의 책, p.760.

11	五言律詩	「閑居」	90	七言絕句	「秋夜二首」
12	五言律詩	「同鍾伯敬先生及諸子夜汎夾山草蕩二」	91	七言絕句	「宮怨」
13	五言律詩	「登天別山眺黃鶴樓鸚鵡洲諸勝同王幼度朱其勤李宗文張仲虎王子雲龍夢先熊元敬分韻」	92	七言絕句	「廬山草堂二首」
14	五言律詩	「次朱詠白先生韻」	93	七言絕句	「昌化道中作」
15	五言律詩	「雨夜柬令則」	94	七言絕句	「曉泊釣臺」
16	五言律詩	「湖上再晤永啟」	95	七言絕句	「泊金閭戲贈鄰舟女郎」
17	五言律詩	「湖上苦雨懷長令則」	96	七言絕句	「送董太史還雲間」
18	五言律詩	「重過嘉禾感懷」	97	七言絕句	「冬夜懷宛叔」
19	五言律詩	「永啟友夏入法相余以他事為得隨從賦此志愧」	98	七言絕句	「春日有懷」
20	五言律詩	「雪夜小汎」	99	七言絕句	「青羊澗」
21	五言律詩	「寒夜送夏夫人從楚入洛」	100	七言絕句	「代送項先生北去」
22	五言律詩	「舟居拈得風字」	101	七言絕句	「戲代」
23	五言律詩	「汪夫人以不聲園詩見示賦此寄之」	102	七言絕句	「留別林天素」
24	五言律詩	「吳老夫人出訪山莊以詩見示次韻賦答」	103	七言絕句	「懷宛叔」
25	五言律詩	「哭黃夫人孟暉」	104	七言絕句	「秋夜」
26	五言律詩	「參憨大師」	105	七言絕句	「同太史過湖上未幾先生歸予獨留湖上苦雨感賦」
27	五言律詩	「新秋閉關靈鷲山中」	106	七言絕句	「湖上早起」
28	五言律詩	「西湖寒夜與令則諸子話舊分賦」	107	七言律詩	「無題」
29	五言律詩	「春夜留別」	108	七言律詩	「寒夜泊湖上」
30	五言律詩	「起步二首」	109	七言律詩	「舟次江滸」
31	五言律詩	「鸚鵡洲候月」	110	七言律詩	「新秋逢人初度感懷諸女伴」
32	五言律詩	「為汪然明題夢草」	111	七言律詩	「湖上次韻答黃孟暉夫人」
33	五言律詩	「重晤元達并次朱先生韻」	112	七言律詩	「冬夜渡江」
34	五言律詩	「寒夜訊眉公先生」	113	七言律詩	「陽臺山晚步」
35	五言律詩	「日沉歌」	114	七言律詩	「武陵紀火」
36	五言律詩	「友人以斷腸草寄怨予心非反之」	115	七言律詩	「今夜寒」
37	五言律詩	「答寄」	116	七言律詩	「冬夜渡江」

38	五言律詩	「遊牛首闕春江即目」	117	七言律詩	「秋夜舟中懷宛叔」
39	五言律詩	「長至入雲棲」	118	七言律詩	「秋日送夏長卿北去」
40	五言律詩	「重過雨花臺望江」	119	七言律詩	「暮春歌」
41	五言律詩	「月下」	120	六言律詩	「感懷」
42	五言律詩	「和宛叔」	121	六言律詩	「中秋賦戲宛叔」
43	五言律詩	「天柱峯」	122	詞	「五月 滿庭芳」
44	五言絕句	「送友夏 友夏贈詩有天涯 流落同之句」	123	詞	「七夕 鵲橋仙」
45	五言絕句	「懷蘇郎」	124	詞	「除夜 水龍吟」
46	五言絕句	「冬夜三首」	125	詞	「初春 錦堂春」
47	五言絕句	「送生甫」	126	詞	「春暮 卜算子」
48	五言絕句	「寄別」	127	詞	「春暮 搗練子」
49	五言絕句	「獨汎」	128	詞	「春日 浣溪沙」
50	五言絕句	「大堤曲四首」	129	詞	「春日 風中柳」
51	五言絕句	「新月」	130	詞	「春日 菩薩蠻」
52	五言絕句	「夜月」	131	詞	「春恨 碟戀花」
53	五言絕句	「月夜留宿馮夫人池上」	132	詞	「初夏 巫山一段云」
54	五言絕句	「過宛叔夢閣」	133	詞	「冬夜 如夢令」
55	五言絕句	「別窗下蕉」	134	詞	「冬夜 生查子」
56	五言絕句	「寄外」	135	詞	「冬夜偶成 鵲橋仙」
56	五言絕句	「初冬拜外太祖墓」	136	詞	「寒夜 玉春樓」
58	五言絕句	「偶作」	137	詞	「秋懷 天仙子」
59	五言絕句	「病中偶拈」	138	詞	「留別 如夢令」
60	五言絕句	「題王郎畫」	139	詞	「宮怨 巫山一段雲」
61	五言絕句	「題姬人畫蘭四首」	140	詞	「湖上有感 憶秦娥」
62	五言絕句	「偶賦」	141	詞	「湖上曲十首」
63	五言絕句	「丹陽道中作」	142	詞	「閨怨 生查子」
64	五言絕句	「孤山坐月」	143	詞	「怨嘲 醉春風二首」
65	五言絕句	「山齋同友人坐月」	144	詞	「戲詠瓶內花 浣溪沙」
66	五言絕句	「重晤友夏同泛山漾懷念 永啟」	145	詞	「臨別 如夢令」
67	五言絕句	「秋夜梁溪道中別御君」	146	詞	「夢到舊居 如夢令」
68	五言絕句	「病中聽雨」	147	詞	「靜夜 如夢令」
69	五言絕句	「送友人東歸」	148	詞	「長相思」
70	五言絕句	「次友夏韻」	149	詞	「月夜偶代 憶秦娥」
71	五言絕句	「探梅」	150	詞	「雨夜臥病懷宛叔 憶秦娥」

72	五言絶句	「怨梅」	151	詞	「戲留譚友夏 憶秦娥」
73	五言絶句	「代答梅」	152	詞	「對月有懷 賀新郎」
74	五言絶句	「秋暮送蜚卿」	153	詞	「懷譚友夏 如夢令」
75	七言絶句	「夢宛叔」	154	詞	「冬夜懷韓夫人 生查子」
76	七言絶句	「夜歸憶鄰舟女郎」			
77	七言絶句	「讀張秀先生傳偶題」			
78	七言絶句	「憶江南」			
79	七言絶句	「哭韓夫人」			

<표 3>에 의거하면 왕미의 시작품에는 七言보다 五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七言은 45수가 있고 그 중에 絶句가 32수, 律詩가 13수를 차지하고 있다. 五言은 七言보다 수량이 많아 총 74수가 있는데 律詩가 43수, 絶句가 31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五言律詩는 43수가 있는데 이는 전체 시의 36%이며 1/3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왕미가 五言, 특히 五言律詩에 제일 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작품에 있어서는 형식상에 小令, 中調, 長調가 다 구비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 시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는 주로 수심에 대해 묘사한 작품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시는 죽은 친구를 애도한 만시,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 宮怨詩, 題畫詩, 이별시, 당대 명사들과 唱和詩, 愛情詩, 고독을 나타내는 시와 자연산수를 노래한 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중에 명사들과 창화한 작품, 사랑을 나타낸 작품과 자연을 묘사한 작품이 대부분 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수심을 토로한 작품은, 주로 늙은 외모, 애정과 운명에 대해 감정을 드러낸 것임을 볼 수 있다. 교유 과정에서 이룩한 시작품도 대부분 오언율시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유시는 총 41수이고 그 중에 오언율시가 23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유시 41수는 전체 시의 34%, 오언율시 23수는 교유시의 53%이다.⁶⁰⁾ 이는 수준이 높은 교유관계와 기녀들의 시재를 높게 요구하는 시대배경과 연관될 것이다.⁶¹⁾

60) 왕미의 五言律詩는 총 43수가 있는데 그 중에 창화한 시작품과 벗과 교유하는 과정 중에 지은 작품으로 「送眉公先生還雲間」, 「湖上留別王永啓譚友夏」, 「秋夜舟中留別」, 「宛叔招飲花下得狂字」, 「同鍾伯敬先生及諸子夜汎夾山葦草二」, 「登大別山眺黃鶴樓鸚鵡洲諸勝同王幼度朱其勤李宗文張仲虎王子雲龍夢先熊元敬分韻」, 「次朱詠白先生韻」, 「雨夜柬令則」, 「湖上再晤永啓」, 「湖上苦雨懷長令則」, 「永啓友夏入法相余以他事爲得隨從賦此志愧」, 「寒夜送夏夫人從楚入洛」, 「舟居拈得風字」, 「汪夫人以不聲園詩見示賦此寄之」, 「吳老夫人出訪山莊以詩見示次韻賦答」, 「哭黃夫人孟暉」, 「參愍大師」, 「西湖寒夜與令則諸子話舊分賦」, 「爲汪然明題夢草」, 「重晤元達并次朱先生韻」, 「寒夜訊眉公先生」, 「答寄」와 「和宛叔」을 들 수 있는데 총 23수로 五言律詩의 53%이고 1/2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1) 왕미는 교유한 대상이 상층 남성과 상층 여성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기녀의 문학적

Ⅲ. 黃眞伊와 王微 시의 특징

1. 사랑과 이별

황진이와 왕미는 사랑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사대부가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었다. 이에 두 시인은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늘 이별, 그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의 시가 작품에서도 그리움과 기다림에 시달리는 고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진이 : 그리움의 미학

「奉別蘇判書世讓⁶²⁾」

판서 소세양을 보내며

月下庭梧盡,	달 아래 뜰 가운데 오동잎 모두 지고,
霜中野菊黃.	서리 속에 들국화 곱게 피었네.
樓高天一尺,	다락 높아 자칫하면 하늘 닿을 듯,
人醉酒三觴.	사람은 석잔 술에 취해 누웠네.
流水和琴冷,	흐르는 물 차가와 거문고와 어울리고,
梅花入笛香.	매화 향기 피리소리 뿜어 보내네.
明朝相別後,	내일 아침 서로 떠나 이별을 고한 뒤에,
情與碧波長.	그리운 정 물결처럼 끝이 없겠지. ⁶³⁾

이 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소세양은 어렸을 때 여색에 혹하는 것은 남자가

재능이 요구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왕미는 뛰어난 시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사회적 위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五言律詩를 많이 읊은 것이 아닌가 싶다.

62) 蘇判書世讓 : 조선조 문신이고 자가 彦謙, 호가 陽谷, 退齋, 退休堂이다. 중종 4년(1509) 문과에 합격하였고, 중종 16년(1521)영접사인 李荇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아 시문으로 응답하여 문명을 떨치었다. 律學에 뛰어나고 글씨도 잘 썼는데 주로 松雪體를 잘하였다. 저서로는 『陽谷集』이 있다.

63) 김지용, 『역대여류한시문선』, 대양서집, 1973, p.67. 이하 황진이 한시는 모두 이 책에 의거하므로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아니며 자신이 송도의 황진이와 30일 동안 동숙하고 곧 끊어버려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내기를 걸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고 30일이 되는 날에, 황진이가 위의 시를 읊었는데, 소세양이 이 시를 듣고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고 하여 더 머물렀다.

위의 배경을 통해 이 시는 황진이가 소세양과 이별할 때 읊은 작품인 것을 알 수 있다. 언뜻 보면, 이 시는 이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묘사를 위주로 읊은 것 같지만 행간에 깊은 감정을 숨기고 있다. 이는 “달 아래 뜰 가운데 오동잎 모두 지고(月下庭梧盡)”, “서리 속에 들국화 곱게 피었네(霜中野菊黃)”, “사람은 석잔 술에 취해 누웠네(人醉酒三觴)” 등 측면적인 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이별을 만류하는 대신, 그리운 정을 끊임없는 물결에 비유함으로써 입을 향한 그리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출하였다. 이렇게 주변 경물과의 조화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기법은, 직접 감정을 노출하는 것보다 더욱 감정적 무게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자존심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⁶⁴⁾

「別金慶元」

김경원과 헤어지다

三世金緣成燕尾,	영원한 굳은 인연 금실 좋은 짝이 되니,
此中生死兩心知,	이 중에서 살고 죽음은 두 마음만은 알리라.
楊州芳約吾無負,	양주의 꽃다운 언약 내 아니 어기려니와,
恐子還如杜牧之.	다만 입이 두목지마냥 미남임이 두려울 뿐이로다. ⁶⁵⁾

위 시는 김경원과 이별할 때에 지은 작품이다. 김경원은 황진이가 사귀었던 인물인데 그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다. 삼세란 시어는 전세, 현세, 내세를

64) 성기서는 일찍이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에서 황진의 이런 표현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별의 아쉬움은 여기서 ‘달’, ‘떨어진 오동잎’, ‘서리’, ‘들국화’, ‘흐르는 물’, ‘거문고’, ‘매화’, ‘피리’, ‘푸른 물결’ 등의 시각·청각·후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이별의 상황을 묘사할 뿐 아니라, 시인의 긴장 속의 여유와 감정 절제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 이별을 앞둔 절제된 감정을 이미지간의 긴밀한 긴장과 조화로 서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여기 사용된 자연은 인간과 독립되거나 갈등하고 있는 자연이 아니라 조화하고 인간의 정서를 머금고 암시하여 시의 정서적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성기서,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5, pp.16~18.

65) p.67.

말하는 것으로 김경원과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결국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었기에 시인에게 풀 수 없는 근심이 되었다. 황진이는 시작품에서 늘 표현했듯이, 자신이 산처럼 입을 그리워한 정이 한결같았지만 입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마음이 항상 변동하였다.⁶⁶⁾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입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시인은 상사의 고통과 이별의 근심에 늘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제3, 4구에서 “양주의 꽃다운 언약 내 아니 어기려니와, 다만 입이 두 목지마냥 미남임이 두려울 뿐이로다(楊州芳約吾無負, 恐子還如杜牧之.)”라고 하여 이 복잡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어저 내 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더나
있으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⁶⁷⁾

이 시조는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⁶⁸⁾ 시인은 입을 사랑한다는 말마저 하지 못한 채 입을 떠나보내 버렸다. 그러나 시인은 입이 떠나간 순간부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시인은 입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을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혹시 입에게 고백하거나 만류하면 입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서 시인은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두에 등장한 감탄사가 이 복잡한 감정을 더욱 부각시켰었고 모순적 情感主調를 자아냈다.

「相思夢」

상사몽

相思相見只憑夢,
儂訪歡時歡訪儂.

입 그리워 꿈속에 그리다가,
내 입 찾으려니 입도 나를 찾았구려.

66) 내 뜻은 청산이요 입의 정은 녹수 | 로다/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쏘냐.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주야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쏘냐.

67) 김홍규 외 6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p.685. 이하 황진이 시조는 모두 이 책에 의거하므로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68) 이 작품은 주로 표현과 그 표현에 포함된 심리의 차원에서 많이 연구되어 오면서, 같은 주장들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여러 번 변형 윤색되어 왔다. 양희철,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일이야>의 연구」,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2012, p.226.

願使遙遙他夜夢, 다른 날 밤 꿈에도 거닐다가,
一時同作路中逢. 우리 함께 다정하게 만나리.⁶⁹⁾

여성한시에는 꿈에서 임과의 만남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 적지 않다. 황진이도 역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을 꿈에서나마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시인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제3, 4구에서 “다른 날 밤 꿈에도 거닐다가, 우리 함께 다정하게 만나리(願使遙遙他夜夢, 一時同作路中逢)”라고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2구에서는 회문체⁷⁰⁾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서로가 그리워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지향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솔직한 어휘와 개성적 표현을 통해 더욱 독자의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 뜻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 | 로다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쏘나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예고 가더라.⁷¹⁾

시조의 초장에서 두 가지 은유가 등장하였다. ‘내 뜻은 청산이요’와 ‘임의 정은 녹수이로다’가 그것이다. 청산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리는 정이 한결같지만, 물은 막을 수 없고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다. 이 표현은, 시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정과 임이 떠나가는 무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시인은 종장에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예고 가더라”라고 하여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69) p.67.

70) 회문체란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거나 모두 의미가 통해야 하는 것이다. 정영문은 「황진이의 시세계」라는 논문에서 이를 지적한 적이 있다. 정영문, 「황진이의 시세계」, 『동방학』 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9, p.203.

71) p.196.

2) 왕미 : 기다림의 미학

「無題」

무제

孤枕寒生好夢頻, 외로운 베개 썰렁해도 좋은 꿈 자주 꾸니,
幾番疑見忽疑眞. 몇 차례 본 듯하여 진실인지 헛갈렸네.
情知夢好都無用, 꿈이 좋아봤자 다 쓸데없다는 것 알지만,
猶願爲君夢裡人.⁷²⁾ 그래도 임 꿈속의 사람 되고 싶어라.⁷³⁾

위 시는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만남을 꿈을 통해 구현한 작품이다. 제1, 2구에서는 꿈에서 임을 만났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제3, 4구에서는 현실로 돌아가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제1구의 ‘좋은 꿈(好夢)’은 임을 만났다는 꿈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외로운 베개(孤枕)’, ‘좋은 꿈(好夢)’은 대비적 구조가 되어 기다림에 시달리는 고통과 위로를 바라는 마음을 더욱 부각시키었다. 특히 “몇 차례 본 듯하여 진실인지 헛갈렸네(幾番疑見忽疑眞)”라는 표현과 “꿈이 좋아 봤자 다 쓸데없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임 꿈속의 사람 되고 싶어라(情知夢好都無用, 猶願爲君夢裡人)”라는 표현은 임이不在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고통과 애정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春日有懷」

봄날에 회포가 있어

昨夜相思慾成夢 어젯밤에 상사몽 이루려 했으나,
含情幾被落花驚. 정을 품고 잤으나 지는 꽃에 몇 번이나 깨었던고?
月明此際知何處, 달 밝은 이 때에 그대는 어디 있는가?
遙憶江邊山上晴.⁷⁴⁾ 멀리 강변의 갠 산마루 그리워하네.

이 시는 「무제」와 마찬가지로 꿈속의 만남을 묘사한 작품이다. 제1, 2구에서 상사몽을 이루려고 했는데 꽃이 지는 소리에 깨었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제

72) 鍾惺, 『名媛詩歸』 36卷 影印版, p.168.

73) 번역 필자, 이하 같음.

74) 鍾惺, 앞의 책, p.169.

2구의 ‘몇 번이나’란 표현이 입을 향한 감정과 상사몽을 이루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정을 품다’와 ‘지는 꽃에 깨었다’는 감정적 무게로 그리는 정을 부각시키었다. 제3, 4구에서는 “이때에 입은 어디에 있는가? 입과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한때를 그리워하네(강변의 갠 산마루는 입과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한때를 암시하는 표현임)”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기다리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 입의 不在 때문에 꿈을 통해 만남을 구현하는 작품으로 「懷蘇郎」⁷⁵⁾, 「有懷」⁷⁶⁾를 더 들 수 있다. 「춘일유회」와 「무제」가 기다림에 시달리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라면 「회소량」과 「유회」는 이별에 대한 깨우침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探梅」

매화를 찾아서

故人辭我去,
期我梅花時.
昨夜偶相念,
起看庭樹枝.⁷⁷⁾

고인이 나를 떠나갈 적,
나와 매화 필 때를 기약했지.
어젯밤에 우연히 생각나기에,
일어나 뜰 나뭇가지를 보네.

「怨梅」

매화를 원망하며

庭樹亦如昨,
故人來何時?
花花自早發,
偏爾獨開遲.⁷⁸⁾

뜰의 나무는 예전 그대로인데,
고인은 언제 오려나?
꽃들은 절로 일찍 피었는데,
오직 혼자만 늦게 피었구나.

「代梅答」

매화를 대신하여 답하다

寄語問樹人,

나무에게 묻는 이에게 말하노니,

75) 「懷蘇郎」: 雁來孤獨夜, 閒坐憶蘇郎. 夢見知何夕, 天寒道正長.

76) 「有懷」: 日斷空閨花影移, 含情偶草十離詩. 一生會晤因緣薄, 夢裡逢君夢已疑.

77) 鍾惺, 앞의 책, p.159.

78) 鍾惺, 앞의 책, p.159.

歲月那能借? 세월을 어떻게 빌릴 수 있겠나?
 爾意怨開遲, 그대는 늦게 핀 것을 원망하나,
 儂意憐遲謝.⁷⁹⁾ 나는 늦게 지는 것을 사랑한다네.

이 세편 시작품은 모두 그리움과 기다림에 시달리는 고통을 노래한 작품이다. 첫 번째 시에서는 입을 기다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 매화를 원망하고, 마지막 시에서는 기다림에 시달린 고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세편 시작품은 이별의 情恨을 主調로 다룬 작품으로 보이는데, 기다림의 고통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매화와 관련지어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시인이 서정시를 다루는 데에서 상투적으로 택한 작시법이라 할 수 있다.

「送生甫」 생보를 보내며

爾別何所遊? 너와 이별한 뒤 어디에서 놀까?
 月明江上舟. 달은 강가의 배에 밝은데.
 異日君思處, 후일 그대를 그리워하는 곳에서,
 憑欄看水流.⁸⁰⁾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물을 보리라.

이 시는 모원의에게 지어 준 작품이 아닌가 싶다. 1624년 전에⁸¹⁾ 왕미가 교유했던 문사 중 연인관계를 맺은 사람이 모원의와 담원춘밖에 없었고, 또 제목에서 상대방을 生甫라고 칭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는 모원의에게 지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모원의의 자가 止生이고 또 甫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기녀라는 신분 때문에 임과 헤어지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지는 제4구에서 흐르는 물로 표출되고 있다. 물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유동성을 지니는 존재이다. 따라서 시인은 제3, 4구에서 “후일 그대를 그리워하는 곳에서,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물을 보리라”라고 하여 기다리는 마음이 물과 같아

79) 鍾惺, 앞의 책, p.159.

80) 鍾惺, 앞의 책, p.158.

81) 이 시작품은 『名媛詩歸』에 실려 있다. 『名媛詩歸』의 편찬자인 鍾惺이 1624년 사망한 것을 보면 이 작품이 늦어도 1624년 전에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치지 않겠다고 밝히었다.

「西陵懷友夏」 서릉에서 우하를 그리워하며

西陵橋下水泠泠,	서릉 다리 밑에 물 차가운데,
記得同君一葉聽.	그대와 낙엽 소리 듣던 게 기억나네.
千里君今千里我,	그대와 나 천 리나 떨어졌는데,
春山春草爲誰靑? ⁸²⁾	봄산의 풀은 누구를 위해 푸른고?

제1, 2구에서는 임과 함께 지냈던 한때를 회상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기다림에 시달리는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1, 2구와 3, 4구는 서로 대비적 구조가 되어, 추억의 아름다움과 기다림의 고통스러움을 대비함으로써 임을 기다리는 고통, 비애, 체념 등 감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감정은 마지막 구절에서 “봄산의 풀은 누구를 위해 푸른고(春山春草爲誰靑?)”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담백한 언어, 직설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시인이 서정을 표출함에 있어 일관되게 취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작품을 통해 황진이와 왕미는 임을 향하는 깊은 감정이 동질적이지만 情念에 대한 주체적 자아의 태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황진이는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의 진정성을 더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봉별소판서세양」에서 나타나는 자존심을 유지하는 절제된 감정표출과 「상사몽」에서 주장한 서로 그리워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지향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에 왕미는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데 훨씬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수량을 갖고 있는 ‘꿈을 통한 만남’을 묘사한 작품, 임을 기다린다는 시적 내용과 임의 不在 때문에 풀이 푸른 의의까지 없어지는 시구⁸³⁾를 통해 파악된다.

82) 鍾惺, 앞의 책, p.168.

83) 「西陵懷友夏」의 제3, 4구를 참조.

2. 멋과 풍류

황진이와 왕미의 시작품을 보면 모두 멋과 풍류의 일면을 느낄 수 있다. 여성적 경향에 벗어나 남성적 매력을 보여주는 황진이의 「박연」, 뛰어난 시재로 명사들과 교유했던 왕미의 교유시는 모두 그녀들의 멋과 풍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멋은 두 시인의 작품에서 다른 경향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황진이는 남성적 멋을 보여준다면 왕미는 여성적인 멋을 보여주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황진이 : 남성적인 멋

「朴淵」

박연

一派長天噴壑轟,
龍湫百仞水濺濺.
飛泉倒瀉凝銀漢,
怒瀑橫垂宛白虹.
電亂霆馳彌洞府,
珠春玉碎澈晴空.
遊人莫道蘆山勝,
須識天磨冠海東.

한줄기 긴 하늘이 바위 골에 뿜어내니,
폭포수 백 길 너머 물소리 우렁차다.
거꾸로 쏟는 폭포 은하수 방불하고,
노한 폭포 가로 드리워 흰 무지개 완연하고.
어지럽게 쏟는 물벼락 골짜기에 가득하네,
구슬 절구에 부서진 옥 창공에 맑았으니.
이곳에 노니는 유자 여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라,
천마가 해동에선 으뜸가는 곳.⁸⁴⁾

박연폭포는 개성시 천마산 기슭에 있는 폭포로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이라 일컬어진다. 이 시는 바로 송도삼절의 하나인 박연폭포를 노래한 작품이다. 폭포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기발한 상상력과 능숙한 비유적 수법(폭포수의 정경을 은하수, 흰 무지개, 천둥 등으로 표현한 비유)으로 폭포의 웅장한 경관이 눈앞에 보이는 듯이 그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용된 어조(‘噴’, ‘怒’)가 맑고 호쾌해서 여성적 한계를 넘어 남성적인 경계에 들어선 데에 의의가 있다고

84) p.68.

할 수 있다.⁸⁵⁾ 그리고 마지막에서 박연폭포가 중국 여산폭포에 비해 더 낮다고 하고, 더 나아가 해동에서 으뜸가는 곳이라고 하는 데서 시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역시 시인의 자부심과 남성적 매력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 왕미 : 여성적 멋

「登大別山眺黃鶴樓鸚鵡洲諸勝同王幼度朱其勤李宗文張仲虎王子雲龍夢先熊元敬分韻」

대별산에 올라 황학루, 앵무주 등 여러 명승을 보고 왕유도, 주기근, 이종문, 장중호, 왕자운, 용몽선, 웅원경과 함께 분운하다

晴光生楚色,	맑은 빛이 초땅의 경치를 내니,
吟眺此山傍.	이 산 기슭에서 읊으며 구경하네.
樓閣銜秋水,	누각은 가을 물에 잇닿았고,
川陵倚夕陽.	천릉은 석양에 기대었네.
草荒洲自出,	풀 우거지자 섬이 절로 나오고,
雲冷鶴猶翔.	구름 차가워도 학은 오히려 나네.
極目煙波裡,	시야 가득한 연과 속에
人傳有戰場. ⁸⁶⁾	전장이 있다고 사람이 전해주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여러 명사들과 분운한 작품이다. 分韻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 시를 짓는데 아무자로 규정하여, 심지를 뽑아 그 운에 따라 시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시인이 즉석에서 어렵지 않게 운을 이용해 시를 읊은 것을 통해 그녀의 박학다식한 식견과 시적 재능을 짐작할 수 있다. 명말 청초 때에 新思潮가 흥기됨에 따라 기녀가 문인과 많이 사귄 수 있었지만 왕미처럼 교유범위가 넓은 사람은 드물었다. 특히 그녀가 교유했던 대상은 상층남성, 상층여성, 상인, 승려, 기녀 등⁸⁷⁾으로 다양하였으며 교유를 주제로 쓴 시작

85) 이해순 외 6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pp.253~256.

86) 鍾惺, 앞의 책, p.151.

87) 왕미는 명사(趙凡夫), 문인(王幼度, 朱其勤, 李宗文, 張仲虎, 王子雲 등)뿐만 아니라 특히 양반구수(黃

품이 41수⁸⁸⁾로 전체 시의 34%를 차지한 것을 통해 그녀의 문학적 실력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교유관계에서 드러난 멋도 볼 수 있다.

「輓趙凡夫 二首」

조범부를 애도하며, 두 수

(一)

吳中眞隕少微星,	오중에 참으로 소미성 떨어졌으나,
洞中猶墓石上經.	마을에선 오히려 돌 위의 경문을 베끼네.
耆舊凋殘猿鶴怨,	노인들 쇠잔해지고 원학이 원망하는데,
支硎山色爲誰靑.	산빛은 누굴 위해 푸르나?

(二)

最難同學又同修,	함께 배우고 함께 닦기란 가장 어려운데,
夫婦雙樓百尺樓.	부부가 나란히 백척루에 깃들었네.
到得一絲不掛處,	고민이 없는 깨끗한 곳에 이르니,
長空孤月自悠悠. ⁸⁹⁾	긴 하늘에 외로운 달이 절로 유유하네.

이 시는 시인이 趙宦光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만시이다. 조이광은 자가 凡夫이고 호가 廣平이며 태창 사람이다. 명나라의 문학자, 書論家로 널리 알

孟畹夫人)와 교유한 적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왕미는 董太史, 汪然明, 愍大師, 夏長卿, 鍾伯敬, 朱詠白, 夏夫人, 汪夫人, 吳老夫人 등 문인, 명사, 양반규수 그리고 승려와 교유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그녀의 다양한 교유관계를 엿볼 수 있다.

88) 「送眉公先生還雲間」, 「湖上留別王永啓譚友夏」, 「秋夜舟中留別」, 「宛叔招飲花下得狂字」, 「同鍾伯敬先生及諸子夜汎夾山草蕩二」, 「登大別山眺黃鶴樓鸚鵡洲諸勝同王幼度朱其勤李宗文張仲虎王子雲龍夢先熊元敬分韻」, 「次朱詠白先生韻」, 「雨夜柬令則」, 「湖上再晤永啓」, 「湖上苦雨懷長令則」, 「永啓友夏入法相余以他事爲得隨從賦此志愧」, 「寒夜送夏夫人從楚入洛」, 「舟居拈得風字」, 「汪夫人以不聲園詩見示賦此寄之」, 「吳老夫人出訪山莊以詩見示次韻賦答」, 「哭黃夫人孟畹」, 「參愍大師」, 「西湖寒夜與令則諸子話舊分賦」, 「爲汪然明題夢草」, 「重晤元達并次朱先生韻」, 「寒夜訊眉公先生」, 「答寄」, 「和宛叔」, 「送友夏友夏贈詩有天涯流落同之句」, 「月夜留宿馮夫人池上」, 「題王郎畫」, 「題姬人畫蘭四首」, 「重晤友夏同泛山漾懷念永啓」, 「次友夏韻」, 「秋暮送蜚卿」, 「哭韓夫人」, 「秋集石湖分得妝字」, 「輓趙凡夫二首」, 「賦戲閨人」, 「泊金閨戲贈鄰舟女郎」, 「代送項先生北去」, 「戲代」, 「留別林天素」, 「湖上次韻答黃孟畹夫人」, 「秋日送夏長卿北去」, 「中秋賦戲宛叔」.

89) 錢謙益, 『列朝詩集』 影印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p.6617.

려져 있다. 일찍이 왕미와 교유했고 특히 그의 부인이 왕미와 친한 사이였다.⁹⁰⁾ 첫 번째 시는 벗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 시는 개인적 감정을 이입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기녀한시에는 이별, 애정에 대해 묘사한 작품이 대부분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⁹¹⁾ 그러나 왕미 시의 주제 범위는 만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이 기녀시인으로서 여성한시 주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멋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哭黃夫人孟暉」

황부인 맹원을 곡하다

秋堤一片石,	가을 독에 한 조각 돌을 세우니,
誰悟是三生.	누가 삼생을 알까?
蕙質非松壽,	혜초의 자질로 술의 장수를 못했으나,
梅魂伴月明.	매화 닮은 달 밝음과 짝을 했네.
遺奩皆竹素,	남겨 놓은 상자엔 모두 서적이고,
雜組亦瑤珩.	뒤섞인 끈에는 또한 노리개들이네.
料得荀家倩,	헤아리건댄 순봉천도
難言不及情. ⁹²⁾	미칠 수 없는 정이라 말하기 어려우리.

위 시의 주인공은 명말 청초 여류시인 項蘭貞이다. 항란정은 자가 孟暉으로, 秀水의 사람이고 후에 黃卯錫의 부인이 되었고 문집으로 『裁云草』, 『浣露吟』 등이 있다. 제1구의 한 조각 돌은 항란정의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삼생이란 말은 전생, 현생, 내생을 말하는 것으로 항란정과 깊은 우정을 상징한 것이다. 제3, 4구에서는 향기로운 혜초와, 품행이 고결한 매화를 인용함으로써 항란정의 성품과 인간미를 찬미하고 있다. 제7, 8구에서는 순봉천의 전고를 인용함으로써 항란정과 황묘석의 부부애를 찬양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왕미는 교유범위가 넓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교유했던 대상에는 상층남성뿐만 아니라 상층여성들도 있었다. 위 시는 바로 상층여성인 항란정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그리고 시

90) 詹學敏, 앞의 논문, p.32.

91) 조두현, 「한국여류한시선 고찰」, 『논문집』 22, 원광대학교, 1988, p.234.

92) 錢謙益, 앞의 책, p.6613.

인이 상층여성들과의 교유 중에 더 이상 기녀가 아니라, 시적 재능이 뛰어난 여성시인으로 간주된 것은 그 자체가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시인이 기녀라는 신분적 제한을 벗어나, 문학적 재능으로 자아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유교사상이 강한 시대에서 스스로 자신의 멋을 발휘하고 사회적 위치를 구현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 시인은 馮夫人, 韓夫人, 夏夫人, 吳老夫人 등과도 교유한 적이 있고 창화한 작품으로 「月夜留馮夫人池上」, 「哭韓夫人」, 「寒夜送夏夫人從楚入洛」, 「哭黃夫人孟暉」, 「吳老夫人出訪山莊以詩見示次韻賦答」, 「汪夫人以不聲園詩見示賦此寄之」 등을 들 수 있다.

이 분류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와 왕미 모두 멋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자가 멋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진은 남성적 어조를 다루어 문학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한 반면에, 왕미는 뛰어난 시재로 상층남성, 상층여성과의 교유를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지만 그녀가 멋을 표현하는 방식은 황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적이라 할 수 있다.

3. 삶에 대한 태도

황진이와 왕미의 시가 작품에서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 작품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황진이의 작품에서는 허무한 생명 의식이 두드러진다 하면, 왕미는 금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연에서 즐기는 향락적 태도가 선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진이 : 과거 화상을 통한 허무주의

「松都」 송도를 노래함

雪中前朝色,	눈 오는 날은 진조의 모습이요,
寒鐘故國聲.	차가운 종은 고국의 그 소리다.
南樓愁獨立,	시름하여 남루에 홀로 섰나니,
殘廓暮烟香.	남은 성터에 저녁연기 오른다. ⁹³⁾

이 시는 송도를 바라보며 옛 고국의 자취를 생각해서 지은 작품이다. 시인은 남루에 홀로 서서 쇠약해진 고국을 바라보니 수십만 가득한데 어디서 한 가닥 피어오르는 저녁연기가 그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⁹⁴⁾ 그러나 시인이 단순히 스산한 마음과 향수만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허무한 인생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변화한 송도의 모습과 황량해진 고국의 성터를 대비함으로써 변화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滿月臺懷古」

만월대를 생각하며

古寺蕭然傍御溝，
夕陽喬木使人愁。
煙霞冷落殘僧夢，
歲月崢嶸破塔頭。
黃鳳羽歸飛鳥雀，
杜鵑花落牧羊牛。
神松憶得繁華日，
豈意如今春似秋。

고요한 묵은 절이 어구 곁에 있는데,
저녁 빛의 교목이 못내 시름스럽게 하네.
연하가 쓸쓸하니, 남은 중의 꿈이요,
세월이 아득해라, 부서진 탑의 머리.
황봉은 어디 가고 새들만 오락가락,
진달래화 진 곳에는 소와 양이 풀을 뜯네.
송악산 변화롭던 그날을 생각하니,
어찌 알았으리, 지금 이 봄이 가을인 듯한 것을.⁹⁵⁾

이 시는 「송도」와 마찬가지로 옛 고려의 궁궐터인 만월대⁹⁶⁾를 바라보면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만월대는 고려왕의 주된 거처로서 그 당시 제일 변화한 궁궐이었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쓸쓸해지고 황량해졌다. 변화한 모습이 사라졌고 절만 남아서 御溝 옆에 서 있는데 태평성대도 중의 꿈속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석양이 교목에 비치는 모습에서 더욱 황량하고 쓸쓸한 감정이 느껴진다. 특히 시에서 등장하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서로 대비적 구조를 이루어 더욱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내 주고 있다.

93) p.68.

94) 김준영, 앞의 논문, p.98.

95) p.68.

96) 경기도 개성 송악산에 있는 고려시대의 궁궐터이다. 919년(태조 2) 정월에 태조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래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다.

「산은 옛 산이로되」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쏘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매라.⁹⁷⁾

이 시는 서경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산과 물의 이원적 구도, 즉 자신은 산으로 변하지 않고 입은 물로서 변하고 떠나는 존재로 표현된다.⁹⁸⁾ 특히 유한한 인생을 유구한 물에 비유한 것은 대비적 구조가 되어 자연변화의 섭리에서 느껴진 갈등과 허무한 인생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은 독자에게 세찬 감정 충격뿐만 아니라, 서경덕의 죽음 때문에 받았던 감정적, 심리적인 충격을 더욱 잘 전달해 주고 있다.

2) 왕미 : 자연 애호를 통한 현실 수용

「新月」 초승달

濕雲澄夜碧,	젖은 구름은 밤하늘에 맑고,
新月掛秋空.	초승달은 가을 하늘에 걸렸네.
半壁光偏滿,	반벽에 빛이 가득한데,
孤鴻落照中. ⁹⁹⁾	외로운 기러기 석양 속에 날아가네.

옛날의 자취를 돌이켜 생각하는 것보다 왕미는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스스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그녀의 현재향락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자연에 대한 묘사에서도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위 시는 바로 이런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다. 제1, 2구에서는 서경으로 그치고 있는데 제3, 4구에서는 자신이 자연과 동화해서 이중적 시상을

97) p.500.

98) 김주수, 앞의 논문, p.257.

99) 鐘惺, 앞의 책, p.162.

이루고 있다. 이 시구를 보면, 겉에서는 서경을 다루고 있지만 속에서는 시인이 만월 같은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홀로 떠돌아다니는 슬픈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내세를 바라지 않고 가만히 현재적 감회를 드러내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현실 수용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舟次江滸」에서도 잘 드러난다.

「舟次江滸」

강가에 배를 대고

一葉浮空無盡頭，
寒雲風切水西流。
蒹葭月裏村村杵，
蟋蟀霜中處處秋。
客思夜通千里夢，
鐘聲不散五更愁。
孤蹤何地堪相託？
漠漠荒煙一釣舟。¹⁰⁰⁾

한 잎사귀 끝없이 허공에 떠가듯,
찬 구름 거센 바람에 물이 서쪽으로 흐르네.
달빛 아래 갈대는 마을마다 절구공이요,
서리 속의 귀뚜라미는 곳곳마다 가을이네.
나그네 생각은 쉽게 천리 꿈에 통하나,
종소리는 오경의 시름을 흘지 못하네.
외로운 몸을 어디에 의탁할까?
막막한 안개 속의 한조각 낚싯배라네.

왕미는 스스로 여행을 즐겼던 여인이었다. 특히 산수 유람의 경험으로 인해 그녀의 시에는 단지 閑居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만이 아니라 여러 名山大川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¹⁰¹⁾ 따라서 그녀의 시에서는 ‘漠漠荒煙’, ‘天邊遠峰’ 등 활달한 이미지가 늘 나타나고 있다. 위 시는 바로 이러한 활달한 자연광경을 즐기다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러나 시에서는 즐거운 마음보다 고향을 돌이켜 생각해서 羈旅의 수심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한 잎사귀(一葉)’, ‘허공에 떠나(浮空)’, ‘찬구름(寒雲)’, ‘거센 바람(風切)’, ‘서리(霜)’, ‘종소리(鐘聲)’, ‘막막한 안개(漠漠荒煙)’ 등 황량한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현실 수용적 태도가 강해 보인다. 이는 “외로운 몸을 어디에 의탁할까? 막막한 안개 속에 한 조각 낚싯배라네(孤蹤何地堪相託, 漠漠荒煙一釣舟)”라는 시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옛날이 아름답지만 지금 의탁할 곳은 낚시배

100) 鐘惺, 앞의 책, p.157.

101) 이려추, 「기녀시인 황진이와 왕미(王徽)의 비교연구」, 『연민학지』 19, 연민학회, 2013, p.212.

밖에 없으니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孤山坐月」 고산에서 달 아래 앉아

半砌落梧影, 섬들에 반쯤 오동나무 그림자 지니,
忽憐孤月生. 문득 가엽게도 외로운 달이 나타나네.
香殘人不寐, 향기 남아 사람이 잠 못 이루니,
奈此夜齋清?¹⁰²⁾ 어찌하여 오늘 밤을 이토록 청아한가?

이 시는 고요한 밤의 경치를 묘사한 작품이다. 제1, 2구에서는 고요한 밤경치를 묘사하고, 제3, 4구에서는 일어나는 정취를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제3, 4구에서는 밤경치를 그대로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인이 그런 경치 속에 동화해, 자신의 심정까지 투영시켜 “情景合一”되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는 시적 성취도를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현재향락적 태도도 보여주었다.

「重過雨花臺望江」 우화대를 다시 지나다 강물을 바라보며

春姿靜遠岑, 봄 자태는 먼 산에 고요하고,
雲影結遙燦. 구름 그림자는 먼 빛을 맺었네.
坐覺高臺空, 텅 빈 높은 누대에 앉아 깨달으니,
不知翠微半. 푸른 산허리에 있는 줄 모르겠네.
落花自古今, 지는 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啼鳥變昏旦. 우는 새는 아침저녁으로 다르구나.
撫化良易遷, 조화는 참으로 쉽게 옮기니,
卽事聊成玩. 눈앞의 일이 그저 구경할 만하네.
況乃晴江開, 하물며 갠 강이 열렸으니,
綠波正拍岸.¹⁰³⁾ 푸른 물결이 언덕에 부딪치네.

102) 鐘惺, 앞의 책, p.163.

103) 張豫章, 『四朝詩』 明詩卷 35, 基本古籍庫清四庫全書本 影印本, p.17682.

이 시는 우화대의 경치를 묘사한 시작품이다. 제1~5구에서는 멀리 포착되는 서경과 누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6~10구에서는 변하는 세상과 눈앞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제1구의 고요함(靜)과 제2구의 맺음(結)이 서로 ‘動靜結合’이라는 구조가 되고 제7, 8구의 ‘쉽게 읊기는 조화’와 ‘눈앞의 구경할 만한 일’이 서로 虛와 實의 대비적 구조가 됨으로써 고요한 경치 가운데 생동적 요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시인의 뛰어난 포착력과 자연 속에 즐기는 즐거움도 동시에 엿보인다. 이 외에 西溪에 대해 “서계 시냇물 가의 길에서, 이런 고요함을 어찌 묘사하는가? 푸른 구름 아래에 흰 돌이 누운 듯, 차가운 향기가 긴 대나무를 뚫고 나오네…중략… 어느 곳은 당년과 비슷하고, 비긴 가지는 초가집을 덮네(西溪溪上路, 窈窕何回複. 白石臥蒼雲, 寒香透修竹…중략…何處似當年, 橫枝覆茅屋)”라고 묘사하거나, 丹陽山에 대해 “비가 개니 산이 더욱 푸르고, 버들 꽃은 바람에 따라 흩날리네(雨歇山愈碧, 楊花拂拂飛)”라고 산뜻하게 자연경치를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연에서 즐기는 현실 향락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분류의 작품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류의 작품에서는 두 시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황진이와 옛날의 자취를 돌이켜 생각하는 감회에 젖거나 죽은 벗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등 다분히 삶에 대한 허무적 태도를 보여주는 데에 비해, 왕미는 현실적 생활을 더 중시하여, 비록 현재적 삶이 허무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IV. 黃眞伊와 王微 시의 문학사적 의의

황진이와 왕미는 한·중 여성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여류시인이었다. 두 시인은 뛰어난 재능과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들의 시가 작품은 높은 문학성으로 여성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진이는 조선중기에 살았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조뿐만 아니라 한시에도 조예가 깊었다. 황진이의 시가 작품은 총 14수만이 전하는데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다. 그녀의 작품은 비록 적은 수량이지만 모두 한국 여성문학사에서 빛이 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그녀의 시조 6수는 시조문학의 귀감이며 여류 시조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작가론』에서는 황진이 시조의 문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황진이가 남긴 시조 6수는 조선시대 시조 문학의 귀감이며 여류 시조의 으뜸이다. 특히 시조문학사상에서 황진이의 시조가 갖는 위상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의 작품성이다. 그토록 높은 격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정과 애정의 기미(幾微)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은 많지 않다고 하겠다.¹⁰⁴⁾

이 내용을 통해 황진이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그녀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으로 인해 기녀문학상에서 으뜸으로 손꼽힌 것을 알 수 있다.

왕미는 명말 청초의 명기로서 당시의 명사들과 교유하며 활발한 문학적 교유를 했던 여류시인이었다. 그녀의 시사는 총 154편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의 문집이나 시집에서 散見된다. 이러한 왕미의 작품은 양적으로 당시의 다른 여류시인보다 부족한 바가 없고 질적인 면에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왔다. 전겸익은 왕미의 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지금 천하에서 시문이 부진하고 奎壁¹⁰⁵⁾ 간에 빛이 까마며 草衣道人과 柳如是만 문장이 맑고 아름다우니 서령과 육교에서 뛰어나다.¹⁰⁶⁾

104) 강진섭, 「황진이론」, 나순선생추모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문학작가론』, 현대문학, 1991, p.459.

105) 작은 글자로 찍어서 부피를 작게 줄인 경서를 이르는 말.

106) 今天下詩文衰廢, 奎壁間光氣隳然, 草衣道人與吾家河東君, 清文麗句, 秀出西泠六橋之間. 錢謙益, 앞의 책, p.760.

그리고 중성도 왕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王微의 시는 아름다우니 李清照, 朱淑眞의 작품과 동등하게 뛰어나다.¹⁰⁷⁾

위의 기록을 통해 왕미의 뛰어난 시재와 자자한 명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가 뛰어난 재능으로 당대의 여류시인 중에서도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황진이와 왕미는 모두 우수한 문학작품으로 각각 한·중 기녀문학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황진이의 시조는 비록 수량은 적지만 그 작품성이 매우 높고 여류 시조문학사에서 으뜸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작품은 조선전기 시조문학의 발전 초기에 큰 공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여류시조가 쇠약해져 간 것을 비추어 볼 때 그녀의 시조는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황진이의 한시는 여성한시의 맥을 이어주는 데 의의가 있고 특히 조선후기 여성한시 융성기¹⁰⁸⁾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제대로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왕미는 新思潮가 흥기되는 명말 청초 때에 살았던 여성이었다. 이때에 각종 시대적 배경 원인 때문에 기녀문학이 어느 시대보다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기녀한시의 최대 융성기를 이루었다. 왕미는 바로 이러한 문학적 환경 속에서 우수한 시가 작품을 산출한 것이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뛰어난 문학과 빼어난 작시법으로 인해 기녀문학 융성기의 말미를 제대로 장식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반규수들과 창화한 작품은 기녀한시의 새로운 양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녀문학사상의 발전에 있어서도 진보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한·중 양국에서 뛰어난 여류시인을 찾는다면, 우선 황진이와 왕미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두 시인은 출중한 외모, 높은 문학적 성취, 뛰어난 문학적 재능으로 인해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문학적 쾌거를 남긴 최고의 기녀시인이자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107) 其詩娟秀出妍, 與李清照, 朱淑眞相上下. 鍾惺, 『名媛詩歸』 36卷 影印版, p.143.

108) 조선후기 여성한시 문학은 조선 전기 여성한시의 맥을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작가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여 여성한시 문학의 최대 융성기를 이루었다. 먼저 여성한시 작가 촌녀(村女)가 새롭게 한시 작가로 등장해 당시 일반 평민들도 한시를 창작하였던 상황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각 신분별 개인작품 수가 상당히 늘어 문집을 가진 여성이 전 시기보다 훨씬 많아졌다. 특히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김금원을 비롯한 소설작가 5인이 모여 일명 삼 三湖亭詩會로 불리는 여성 사회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이에 조선후기 여성한시 문학의 최대 융성기를 이루었다.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p.15~17.

V. 결 론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기녀시인인 황진이와 왕미의 시가 작품을 비교 고찰하였다. 황진이와 왕미는 각각 조선중기와 명말 청초 때에 활동했던 기녀시인이었다. 두 시인은 모두 봉건적 윤리가 강한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일반 부녀와 달리 높은 문학적 성취와 명성까지를 이루었다.

황진이는 한국문학사에서 뛰어난 예술가로 널리 알려진 여류시인이다. 그녀는 비록 14수밖에 안 되는 시가 작품만 남겼지만 뛰어난 시재로 많은 학자의 관심사가 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그녀의 시조가 시조문학의 귀감이고 으뜸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왕미는李清照, 朱淑眞과 함께 손꼽히는 우수한 여류시인이다. 그녀가 총 154수의 시사 작품을 남겼는데 양적으로도 당시의 어떤 여류시인보다 부족한 바가 없다. 특히 그녀가 양반규수와 창화한 시작품은 기녀라는 신분적 제한을 넘어 스스로 자아가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기녀시인인 황진이와 왕미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와 작품을 개관한 뒤 시가 작품을 비교 검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황진이와 왕미의 생애와 시가 작품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시인의 생존연대에 대해 확실한 기록이 없는데 기존자료를 통해 황진이는 중종~명종, 왕미는 1599~1644년에 활동했던 여류시인으로 추정하였다. 두 시인의 시가 작품을 보면, 황진이와 왕미의 현전하는 작품이 각 14수와 154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황진이는 시조가 6수, 한시가 8수가 유전되었고 왕미는 詞가 33수, 한시가 121수가 유전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한 시 형식을 보면 황진이가 칠언시, 특히 칠언절구에 능했던 반면 왕미는 오언시, 특히 오언율시에 정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시 외에, 시조나 사도 다양하게 창작했기에 두 시인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III장에서는 황진이와 왕미의 시가 작품 세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공통된 시가 주제인 ‘사랑과 이별’, ‘덧과 풍류’, ‘삶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두 시인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같은 분류에 속하는 작품이라도 서로 다른 정서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작품의 경우 황진이는 입을 향한 그리움의 정이 강하지만 왕미는 기다림에 시달리는 고통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멋과 풍류를 드러낸 작품에서는 황진이가 여성적 한계를 초월하여 맑고 호쾌한 어조를 다루어서 남성적 매력을 보여주었는데 비해 왕미는 신분적 제한을 초월해 양반규수와 교유하여 여성으로서의 멋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황진이가 옛 자취를 돌이켜 생각하는 감회에 젖거나 죽은 벗을 그리워하는 등 회고적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왕미는 비록 허무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연 애호를 통해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제IV장에서는 황진이와 왕미 시가 작품의 문학사적 평가와 의의를 살펴보았다. 황진이와 왕미는 뛰어난 시재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녀들의 작품이 양국 기녀문학사의 발전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다. 황진이의 시조가 여류 시조문학사에서 으뜸가고 특히 시조문학 발전의 초기에 제대로 공헌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녀의 한시도 여성한시의 맥을 이어주고 특히 여성한시 융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왕미의 시작품은 기녀문학 융성기의 말미를 제대로 장식하는 의의뿐만 아니라, 특히 그녀가 양반규수들과 창화한 작품은 기녀한시의 새로운 양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녀한시의 발전에 있어서 진보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기녀문학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양국의 대표적인 기녀시인인 황진이와 왕미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사 검토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한·중 기녀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고 비교의 대상에 있어서도 국한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황진이와 왕미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그녀들의 생애, 시가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 고찰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역량의 한계로 인해 깊이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필자는 본 연구가 한국과 중국의 기녀문학, 나아가서는 여성문학의 전반을 이해하고 또 비교하는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한국:

- 강전섭,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5.
- 김용숙,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1970.
- 김지용, 『역대 여류한시문선』, 대양서집, 1973.
- 문정희, 『기생시집』, 해냄, 2000.
- 조광국, 『기녀담 기녀소설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 조일동,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8.
- 박영민, 『19세기 문예사와 기생의 한시』, 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원, 2011.
- 李家源, 『玉溜山莊詩話』(國譯韓國歷代漢詩詩話), 延世大學校出版部, 1980.
- 이규용, 『해동시선』, 창문각, 1978.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8.
-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 _____,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이병기, 『한시작법』, 보고사, 1996.
- 이병도 외 5인, 『한국한문학사』중세·군대편, 반도출판사, 1995.
- 이민식, 『한국문화사』, 혜안, 1998.
- 이려추, 『金雲楚와 柳如是 그리고 韓·中 妓女文學.』, 소통, 2013.
- 이헌현, 공원영, 『한국문화와 역사』, 형설출판사, 1996.
- 이형대 외 6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이혜순 외 6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 황재균, 『한국고전여류시연구』, 집문당, 1985.

중국:

- 潘遊龍,『精選古今詩餘醉』影印版,瀋陽:遼寧教育出版社,2003.
- 杜珣,『中國歷代婦女文學作品精選』,北京:中國和平出版社,1999.
- 譚元春,『期山草小引』影印版,『譚友夏合集』卷10·序文影印版,台灣:台灣偉文出版社,1976.
- _____,『譚友夏合集』(中)卷10 影印版,台灣:偉文圖書出版社,1976.
- 李清,『三垣筆記』影印版,北京:中華書局,1979.
- 李聖華,『晚明詩歌研究』影印版,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2.
- 林語堂,『中國人』(全譯本)影印版,上海市:學林出版社,2008.
- 高彥頤,李志生 譯,『閨塾師:明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影印版,江蘇:江蘇人民出版社. 2005.
- 楊宛,『鐘山獻』,清光緒二十三年 影印版.
- 康正果,『風騷與艷情中國古典詩詞的女性研究』,上海:上海文藝出版社,1988.
- 姬源,王寶麟,『青樓詩詞』影印版,西安:陝西人民出版社,1993.
- 胡文楷,『歷代婦女著作考』(增訂本)影印版,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
- 慕甯,『青樓文學與中國文化』影印版,北京:東方出版社,1993.
- 孟森,『明史講義』影印版,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2.
- 明崇禎刻本,『四庫禁毀書叢刊』109 冊 影印版,北京:北京出版社,2000.
- 錢謙益,『列朝詩集小傳』(下)影印版,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3.
- _____,『列朝詩集』影印版,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3.
- _____,『士女黃皆令集序』影印版,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3.
- 周銘,『林下詞選』,基本古籍庫康熙十年刻本 影印版.
- 朱彝尊,『明詩綜』第8冊 卷九十八 影印版,北京:中華書局,2007.
- 張大復,『梅花草堂筆談』影印版,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 張撝之,『中國歷代人名大辭典』影印版,上海:古籍出版社,1999.
- 張曉虎,『清初四大名妓』影印版,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1.
- 張仲謀,『明詞史』,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2.
- 張春樹,駱雪倫,『明清時代之社會經濟巨變與新文化』影印版,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
- 鍾惺,『名媛詩歸』,影印版,

- 陳廣宏, 「譚元春年譜」, 『中國文學研究』(1期) 影印版, 上海;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 2005.
- _____, 『竟陵派研究』 影印版, 北京: 復旦大學出版社, 2006.
- 陳繼儒, 『陳眉公全集』 卷32 影印版, 上海: 中央書店, 1936.
- _____, 『白石樵真稿』 卷18 影印版, 北京: 北京出版社, 2010.
- 陳寅恪, 陳美延 編, 『柳如是別傳』 影印版, 上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 陳維崧, 『婦人集』 影印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5.
- 汪然明, 「西湖紀遊」, 『叢書集成續編』 卷234 影印版, 台灣: 新華豐出版公司, 1988.
- 王鴻泰, 『青樓明妓與情藝生活——明清間的妓女與文人』 影印版,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7.
- 武舟, 『中國妓女生活史』 影印版,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00.
- 王昶, 『明詞綜』 影印版, 基本古籍庫嘉慶七年王氏三泖漁莊刻本.

2. 논문

한국:

- 강전섭, 「황진이의 문학 유산 정리」, 『어문학』 46, 한국어문학회, 1985.
- 구선우, 「황진이 문학의 주제지향과 후대적 수용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8.
- 김성문, 「황진이 시조의 이별 형상과 대응양상」, 『시조학론업』 30, 한국시조학회, 1999.
- 김여주, 「조선조 기녀문학 소고: 매창과 운초의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사범대학 대학원 국어국문과 석사논문, 1979.
- _____, 「김운초의 한시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한국한문학과 박사논문, 1992.
- 김용덕, 「황진이시조론」, 『인문론총』 4,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982.
- 김용숙, 「규원과 별한고: 한시를 통해 본 이조여인의 한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2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1982.
- 김주수, 「황진이 한시와 시조의 비교연구」,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 김주순, 「윤선도의 자연시가와 도연명 시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준영, 「당대 설도와 조선 황진이의 시가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2008.
- 김진영, 「황진이 타성적 삶에 맞선 주체적 예술혼」,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 노인숙, 「황진이 한시 연구」, 『청람어문교육』 23, 청람어문교육학회, 2001.
- 문흥구, 「황진이의 시문학 세계 연구」, 『돈암어문회』, 돈암어문회, 1999.
-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력」,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백민정, 「〈서경별곡〉의 시적 구조와 화자 정서의 내면적 정합성」, 『인문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박영민, 「강담운, 명기의 내적 성찰과 비분의 서사」, 『우리어문연구』 20, 2003.
- 박영완, 「황진이시조 연구」, 『광동어문학』 4, 관동대학교, 1985.
- _____, 「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5.
- 박철순, 「황진이 시조에 나타난 표현기교의 고찰 - 상징성의 표현양상을 중심으로 -」, 『동국어문학』 4, 동국어문학회, 1991.
- 신성하, 「한국 문학에 나타난 여성 상사병 -〈춘향전〉, 황진이, 한용운, 박완서, 신경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심규정, 「양곡 소세양의 신월시와 황진이의 반월시 고찰」, 『대학원논문집』 37, 원광대학교, 2006.
- 성기서,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5.
- 성락희, 「황진이의 시조와 한시 : <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성과문학』 14, 숙명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4.
- 양희철,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일이야>의 연구」,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2012.
- 엄귀덕, 「육조규원시의 자연 이미지리 변천 연구」, 『중국문학연구』 29, 한국중문학회, 2004.
- 윤영옥, 「황진이 시의 tension」, 『국어국문학』 83, 국어국문학회, 1980.
- 윤재철, 「황진이 연구」, 『청람어문교육』 12, 청람어문학회, 1994.
- 이동준,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연구」, 『語文學』 60, 韓國語文學會, 1997.

- 이려추, 「한·중 기녀시인 설도와 이매창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3.
- _____, 「한·중 기녀시인 김운초와 유여시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9.
- _____, 「기녀시인 황진이와 왕미(王微)의 비교 연구」, 『연민학지』 19, 연민학회, 2013.
- 이병기, 「황진이의 예술」, 『춘추』 제2권 제4호, 조선춘추사, 1941.
- 이성혜, 「지재당 강담운의 시세계-그리움으로 머뭇거리는 서성임의 미학」, 『동양한문학연구』 18, 동양한문학회, 2003.
- 이순희, 「이병기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고찰」, 『시조학론총』 40, 한국시조학회, 2014.
- 이신복, 「한국 기류문학 연구」, 『논문집』 11, 단국대학교, 1977.
- _____, 「한국 기류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국문학과 석사논문, 1976.
- 이은상, 「황진의 일생과 그의 예술」, 『신가정』, 신동아사, 1933.
- 이택동, 「조선조 여성 한시의 두 양상」, 『성심어문논집』 20, 성심어문학회, 1999.
- 이화형, 「황진이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 _____, 「시조를 통한 송이와 황진이의 同異性 비교 고찰」, 『시조학론총』 35, 한국시조학회, 2011.
- _____, 「기생시가에 나타난 자의식 양상 고찰 -작자의 자기 호명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학회, 2011.
- _____, 「황진이와 이매창의 한시 비교 고찰」, 『우리문학회』 41, 우리문학회, 2014.
- 이형우, 「상상력의 체질적 층위-황진이와 송이 시조의 체질적 상상력 고찰-」, 『한국시가연구』 34, 한국시가학회, 2013.
-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 임성철, 「황진이의 문학과 애정관의 고찰 - Stendhal의 연애론과 비교하여」, 『문이논총』 2, 건국대학교, 1973.
-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7.

- 정영문, 「황진이시세계」, 『동방학』 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9.
- 조두현, 「한국여류한시선 고찰」, 『논문집』 22, 원광대학교, 1988.
- 조운계, 「황진이의 시와 한국시의 전통」, 『사상계』 4, 사상계사, 1970.
- 조준수, 「조선조 여류한시에 형성된 ‘정한’의 고찰」, 원광대학교 한문학과 박사
논문, 2010.
- 조창환, 「황진이·이매창의 시조와 한시」, 『인문논총』 6, 아주대학교 인문과 학
연구소, 1995.
- 최동호, 「천하명기 황진이」, 『어문논집』 18, 안암어문학회, 1977.
- 최승범, 「풍류를 꽃피운 황진이」, 『여름호』 38, 시와시학, 2000.
- 하성란, 「‘허난설헌’과 ‘황진이’의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강남
어문』 9,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 한용운, 「천하명기 황진이」, 『별건곤』 4, 개벽사, 1929.
- 한혜순, 「황진이의 생애와 문학」, 『성심어문논집』 1,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성심어문학회, 1966.
- 황추효, 「한·중 기녀시인 황진이와 유여시에 대한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인문
학과 석사논문, 2012.

중국:

- 歐陽珍, 「明代妓女詞人研究」, 華東師範大學 中國古代文系學 碩士論文, 2008.
- , 「論草衣道人王薇之詞作」, 『廣西社會科學』 (8期), 廣西: 廣西社會科學界
聯合會, 2010.
- 艾茂莉, 王斌, 「論東坡詞中的“孤鴻”意象—以《卜算子·黃州定惠院寓居作》爲例」, 『西昌學院學報』 (1期), 四川: 西昌學院, 2009.
- 譚德紅, 「明清之際女性文學的奇葩」, 山東師範大學 中國古代文學系 碩士論文,
2007.
- 盧英蘭, 「對黃眞伊及其詩歌文學的文化闡釋」, 延邊大學 亞非語言文學系 碩士論文,
2003.
- 劉坡, 「對黃眞伊及其詩歌文學的文化闡釋」, 延邊大學 亞非語言文學系 碩士論文,
2007.
- 林春穎, 「中晚秦淮名妓考」, 吉林大學 中國古代文學系 碩士論文, 2009.

- 孟光全,「王微與譚元春的詩歌唱和」,『內江師範學院學報』(7期),四川:內江師範學院,2009.
- 孟宋,巧芸,「唐詩中月意象的情感內涵與藝術特征」,青島大學 中國古代文學 碩士論文,2005.
- 李新剛,「最有氣節的秦淮名妓」,『文史博覽』(6期),湖南:湖南省政協,2009.
- 郭延禮,「明清女性文學的繁榮及主要特征及」,『文學遺產』(6期),山東大學中文系,2002.
- 郝君峰,「柳如是與黃眞伊詩歌比較」,『韓國研究論叢』(1期),北京:復旦大學,2010.
- 陳冰冰,「中韓女性文人身分建構之策略研究——以柳如是與黃眞伊伊爲中心」,『遼東學院學報』(2期),遼寧:遼東學院,2012.
- 陳廣宏,「譚元春年譜」,『中國文學研究』(1期),上海: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2005.
- 陳金琳,「試論中國古典詩歌中的烏鴉意象」,『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3期),株洲: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2006.
- 詹學敏,「王微研究」,南京大學 中國國代歷系 碩士論文,2011.
- 鄭洋,「蒹葭意象的符號學分析」,『佳木斯大學社會科學報』(1期),佳木斯:佳木斯大學,2006.
- 朱恒,「中國古典詩詞新月意象探微」,『江西教育學院學報』(1期),江西:江西教育學院,2005.
- 王鶴,「被詩與禪搭救的出水青蓮 王微與譚元春,許譽卿」,『書屋』(9期),湖南:中南出版傳媒,2009.
- 王強,「中國古代詩歌中月的意像」,『濮陽職業技術學院學報』(5期),濮陽:濮陽職業技術學院,2012.
- 王政,王維娜,「詩經中的船及其后世的婚媾人類學意義」,『文藝研究』(7期),北京:中國藝術研究院,2006.
- 王自立,「廣陵草衣覓好句 吳江柳隱夸桃花」,『揚州日報』,揚州:揚州市委機要報,2011.

3. 기타

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05&gunchaId=ev002&muncheId=01&finId=048&NodeId=&setid=874765&Pos=0&TotalCount=46&searchUrl=ok

바이두,

<http://baike.baidu.com/view/55498.htm>